

November 2015

월간 가든인 11월

Gardenin

특집
기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현장취재

GARDENIN LIFE
11
VOL. 31

Gardenin Maintenance

11월 정원의 정원관리 / 구근 심는 디자인
커뮤니티 정원 '행복농장'

Gardenin Plants

서복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백색의 향연 '구절초' / 이동혁

Gardenin Culture

조선시대 정원 조성법 기록 문헌 / 김홍렬
도시 속 기화 뜰 정원 / 우정아

Gardenin Design

제 3회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우리 가족의 심터 '뜰' / 권혁문
제 1회 서울 정원박람회
"모퉁이에 비추인 태양" / 황지해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Gardenin Information

이달의 추천도서 / 한국의 정원&조경수 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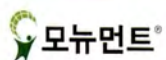
ISSN 2288-1719



10,000원

9 772288 171000

잔디 잡초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syngenta

- 다양한 잡초에 적용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입니다.
- 미 등 논밭에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합니다.
- 잡초 발생 초기 뿐만 아니라 발생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약효가 탁월하며, 약효 지속기간이 길다.
- 잔디(한국잔디)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주무대장직별 - 한국잔디

무단복합전화: 080-900-1114 | 상담전화 1588-3889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 신젠타는 본지판을 잘 읽고 이해하십시오. 이 표기판을 본지판에 따라서는 신젠타에서 발급받은 설명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지판은 본지판에 따라서는 신젠타에서 발급받은 설명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Gardenin
Gardenin 월간 11월호



수도예고 정원반 미술작품

CONTENTS

Gardenin Maintenance

동절기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우선 정원은 가장 할 일이 많은 계절로 정원의 관리가 단단해야 봄에 아름다운 화단을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할 정원관리 리스트를 점검하는 중요시기

- 4 11월 정원의 정원관리 / 구근 심는 방법
- 8 정원사의 일기 / 김사용
- 14 커뮤니티 정원 '행복농장'

Gardenin Plants

동절기는 정원의 식물이 잠을 자는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원에 필요한 식물들 미리 준비하고 땅이 얼기 전에 식물을 구입하여 식재하는 일도 필요하며, 겨울기간 동안 식물연구와 디자인을 점검해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계절별 정원의 구성을 사진으로 구별하며, 앞으로 관수문제도 고려하여 식재에 열두해야 한다.

- 18 정원속 보이네/ 박공영
- 24 Special Issue - 정원속 들여다보기/서준혁
- 32 서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 34 관목시대 / 조판나무
- 38 백색의 향연 '구절초' / 이동혁
- 40 단풍나무 우리의 상채분류 / 이명호

Gardenin Culture

정원과 융합된 주변의 문화들의 정보를 모아 소개하며, 이웃의 정원의 주제와 정원사의 마음도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정원문화에는 다양한 주제로 열거하지만 정원문화의 가치는 그 나라의 무의 상징을 표출하는 장소이며 계속 후손을 위해 진화하는 장소이기에 알아야 할 거리를 소개한다.

- 42 영국의 가드닝, 디자인 스킴 / 손관화
- 46 조선시대 정원 조성법 기록 문헌 / 김홍렬
- 50 도시 속 기화들 정원 / 우정아

Gardenin Design

특집 정원박람회 - 경기정원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가 거의 동시에 열렸으며 각각 특성을 살려 많은 정원디자인의 소개와 정원의 실제모습, 모델정원이 소개되었고 각 박람회의 역할을 소개한 코너

- 54 특집/ 제3회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 56 우리 가족의 쉼터 "들" / 권혁문
- 60 특집/ 제1회 서울 정원박람회
- 64 "모퉁이에 비추인 태양" / 황지해
- 70 White Flower / 오도
- 74 프랑스의 화단 식재의 특징 / 정수진
- 77 정원으로의 여행 / 서수현
- 80 실내정원의 Craft / 우정아

Gardenin Information

- 81 한국의 정원 & 조경수도감 / 제갈명, 손현택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정원의 발돋움이 바쁘게 재촉한다.

낙엽이 떨어지는 게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바람이 더욱 거세지게 되며, 서리와 돌풍 그리고 차가운 비로부터 부드러운 식물의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온실이나 실내로 식물을 옮겨야 하며 만약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식물 혹은 화분과 함께 본래 있는 자리에서 보호재료를 덮어주어야 한다. 겨울은 새들에게도 힘든 시기이므로 물과 음식 등의 식량을 채워주어야 한다.

가을 정원의 화단정리와 정원의 정리는 다음 해, 봄 어느 정원이 아름다운가를 판가름 할 수 있다. 정원은 일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겨울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정원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매우 높다. 겨울 전 축축한 정원의 죽은 기질을 깨끗이 정리하고 필요한 곳은 비료도 주고 가능하면 꽃이 지고 난 화단에 우드칩 등으로 멀칭을 깔아주면 온도조절도 하므로 냉해를 막고 뿌리의 성장과 잡초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가지지 풀은 뿌리까지 깨끗이 정리해 주어야 한다.



가을 화단 정리는 정원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를 잊지말자. 건강한 뿌리성장의 활동은 겨울내내 계속된다.



잡초 제거후 화단의 모습

정원사의 정원관리 업무리스트

No.	리스트	여름		
		9	10	11
01	관목 & 덩굴정리			
02	가지치기 / 전정작업			
03	퇴비주기			
04	춘·추근 심고 나누기			
05	화단 관리			
06	원에 업무			
07	정원도구 수리·유지·보수			
08	잔디 관리(깎기)			
09	온실 비닐하우스 관리			
12	추수하기			
13	조경 경관 디자인			
14	춘식·추식 씨앗 파종			
15	동철기 정원 관리 준비			
16	물 배기(집초제거)			
17	병충해 관리			
18	식물명 표찰 작업			
19	식재 선정 작업			
20	식재 심기 작업(춘식추식)			
21	토양 분석 및 관리			
22	관수 공급			
23	총괄 관리 감독(정원관리판도백)			
24	작업전 후 사전정리			
25	파종시기 리스트 작업			
26	물통준비			



잡초의 씨가 땅에 떨어져 번식하지 않도록 제거해야 봄에 건강한 식물을 볼 수 있다.

꽃

씨 뿌리기와 심기

튤립(tulip) 구근은 이번 달 까지 심어야 하며, 어떤 튤립은 해를 넘기며 살아가고, 어떤 튤립은 해를 넘기면 퇴화 되어서 지표식물처럼 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 심어주어야 한다.

이제 겨울 지표식물을 마지막으로 손을 봐야 하며, 꽃무(wallflowers), 물망초(forget-me-nots), 데이지(bellis), 양초(Primula), 제비꽃(Viola) 등 겨울용 지표식물이나, 봄에 개화하는 지표식물을 준비하여 노지나 화분에 비료와 함께 심어야 한다.

구근 식재 디자인:
디자인, 아이디어, 주제로 심는 구근연출

- 다수의 구근을 심는 방법 : 네덜란드의 봄 느낌에 나도록 9개 또는 90봉지든 다량의 다양한 구근을 선정하여 나무 돌레, 원형모양, 혹은 일자형 등등의 자유로운 형태로 심는다.
- 그림으로 구근을 심는 방법 : 튤립, 수선화는 적어도 1줄을 12개 정도의 양으로 심어야 형태를 나타내며, 각각의 색상이 다른 품종으로도 형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가능하다면 같은 종, 색상의 품종을 그림으로 심는 것이 이상적이다.
- 작은 장소에 식재하는 방법 : 한가지 색의 품종의 구근을 작은 장소에 심는다. 한 톤의 색은 강한 인상을 주며, 장소가 넓어 보이는 효과도 준다.
- 넓은 장소에 식재하는 방법 : 정원의 크기가 크고 많은 곳에 식재가 필요한 경우 2-3가지 톤의 색상의 식재가 효과적이다. 각각의 구근의 색상을 고려하여 심으며, 특히 흰색 혼합은 감각의 색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 기존의 식재와 혼합하여 심는 방법 : 이른봄 구근이 개화하므로 맨지나 다른 식물과의 혼식을 이용한 식재 방법으로 최근 많이 이용되며 잘 혼합하면 더 많은 구근의 식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정원의 기본 구조의 틀을 잡는 효과도 주며, 주변 식물, 나무 등의 색상, 잎 형태를 고려하여 심는다.
- 봄의 구근은 관목이나 교목을 더 품위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심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복수초, grape 하아신스, 크로커스, 스노우드루, bluebell, 수선화 등은 나무나 관목아래에 구근의 꽃이 피면 봄의 길을 모두가 걷고 싶어한다.
- 구근은 낮은 것이 많으므로 정원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심는 경우가 있다.
- 화단과 리가든은 구근으로 봄을 일찍 맞이하며 봄의 색상을 인겨주는 구근이 가장 효과적이다. 바위사이에서 올라오는 구근은 생명력을 나타낸다.
- 몇가지 구근은 지피식물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 잔디위에 심는 방법, 컨테이너박스, 화분에 심는 방법
- 경사진 면은 관리가 힘들고 잔디를 깎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구근을 심어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방법도 있다.



가지치기와 뿌리나누기

잎이 지는 다년생 야생화의 가지치기를 하여 재사용 비료에 배합을 해주거나, 펜스테몬(Pensitemon)은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하여 봄까지 최고의 비료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늦은 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지는 가지를 쳐주며 특히 초본상단을 서리로부터 보호를 하거나 멀칭(우드칩, 기타등등)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장식용 그라스나 대나무는 이시기에 가지를 치거나 다듬어주어야 하며, 다년생 야생화가 너무 조밀하게 자랐으면 뿌리나누기를 통해 분식을 해주는 것이 좋다. 다알리아(dahlias)나 칸나(cannas)의 뿌리를 따로 저장해 주고 베고니아(begonias)는 첫 서리가 내린 후에 저장을 한다.

증식

다년생 양귀비(Papaver, perennial poppies)와 베르바스쿰(Verbascum, mullein)들은 가을 종자 파종이 가능하며 플록스(Phlox), 꼬리풀, 숙근 사루비아 등의 삽수는 겨울 온실에서 번식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번식을 위한 정리



1. 화단의 꼬리풀을 정리한다.



2. 정리한 후의 화단에 퇴비를 뿌려주어 뿌리가 잘 자라도록한다.



3. 자른 가지는 검은 잎을 흠어주어 깨끗이한다.



4. 화분에 삽수하여 비닐로 덮어 온실에서 보관한다.

일반관리

있이지는 다년생 야생화의 가지치기를 하여 재활용 화단의 다년생 화초에 병해를 입지 않고 뿌리가 성장하는 시기를 위하여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멀칭을 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내한성 경계 구분용 식물의 가을 멀칭을 해주며, 잎을 함께 묶어주고 보호를 하여 상단 부분 및 하부의 잎과 줄기를 보호해 준다. 멀칭을 통한 토양의 구성을 조정하여 토양의 활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크기가 큰 괴경은 서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복벽이동로 두껍게 보호를 해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따뜻한 남쪽지방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여 가을부터 봄까지 자라나는 잡초를 잡을 수 있으며, 습한 지방에서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제초제를 사용할 때는 다른 식물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하며, 토양의 작용이 줄어드는 가을과 봄 사이에 토양의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초제와 비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는지를 확인하며, 점토성으로 통기가 불량인 토양에서 균핵병(sclerotinia)이 주요 줄기에서 발생하여 다년생 식물이 죽어가는지를 확인해 본다.

많은 질병이 겨울에 흙 속에서 월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고 내년에도 다시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새로운 종으로 바뀌 심거나 위치를 바꾸어 심어서 질병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겨울에는 성장을 멈추고 동면을 하기 때문에 비료를 주면 안되며 새로 심은 식물주위의 흙을 골라주어서 해충의 알을 드러나게 해서 새의 먹이가 되게 해줄 수도 있다. 토양이 너무 오랜 기간 부식되지 않게 개방되면 안종으며, 풍화 또는 영양분의 유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멀칭비닐 등으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좋다.

미리 준비하기

가을의 화단에 할 일은 내년 봄을 위한 다년생 지표식물의 종자의 구입을 준비하고 다년생 식물의 식재도 구입하여 봄에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도록 가을 화단에 식재도 준비한다. 내년 여름을 위한 연숙 개화형 식물의 자료를 조사해 본다.

해충과 질병

겨울 팬지(Pensies)에 노균병(downy mildew)이 생기는지를 확인하고, 국화(chrysanthemums) 식물에게 흰녹병(white rust)이 생

교목과 관목

심기와 옮겨심기

낙엽성 울타리 식물과 교목 그리고 관목은 이 시기에 심거나 옮겨 심을 수 있으며, 말라버리기 전에 해야 하고 짧은 시간에 새로운 흙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장미를 이미 심은 장소에 다시 심는 것 보다는 새로운 자리에 심어 주는 것이 좋으며, 겨울 늦게 심을 수 있는 교목과 관목이 성인이 되기 전의 화분 상태로 구매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새로 심은 교목과 관목은 짙이나 부식토 등을 이용하여 줄기를 덮어주어서 추위와 서리로부터 보호를 해주어야 하고, 투명 비닐을 사용하면 빛이 통할 수 있어서 상록수를 더 좋은 상태로 유지 할 수 있다. 이때 상록수의 잎이 비닐에 접촉 되지 않게 외부에 나무 등을 사용하여 보호 기둥을 세우고 비닐을 둘러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옮겨심기를 하기에 좋은 시기이나 2~3년 이상 된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굴치를 넓고 크게해야 새로운 자리에서 잘 적응하고 고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지치기와 적응시키기

낙엽성 교목과 관목 그리고 화양목은 이 시기에 잎이 진 후 가지치기를 해 주는 것이 작업이 쉬우며, 가지의 방향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상록수인 경우에는 내년 봄까지 기다린 후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장미의 경우 뿌리의 고정성 바람등에 의해서 약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줄여주는 전정을 해야 하고 잔가지를 살짝 쳐주는 것이 좋다. 덩굴 장미의 경우는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작업을 못했었다면 지금이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하는 시기이다. 관목은 일반적으로 봄에 바짝 잘라주는 것이 좋지만 붓들레이(Buddleja)나 층층나무(Cornus) 지금 절반 정도로 잘라주어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깔끔한 모양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나무가 너무 크거나 울창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덩굴식물을 지지대에 잘 묶어주어서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거나 지지대와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가지는 잘라내 버리는 것이 좋다.

증식

층층나무(Cornus), 사철나무(Euonymus), 개나리(Forsythia), 수국(Hydrangea), 감탕나무(Ilex), 버드나무(Salix) 등의 장식용 관목의 하드우드 삽수를 채집하며, 작년에 채집했던 삽수를 확인하고 노지나 화분에 심는다. 삽수가 병든 상태이면 심은 후 다른 식물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하며, 올해 초에 채집 한 소프트 혹은 그린우드 삽수가 병이 걸렸는지 확인을 한다. 교목과 관목의 종자나 열매를 수확하고 종자가 익은 후에 심을 수 있다.

일반관리

나무의 지지대가 제대로 박혀있는지를 확인 하며, 끈으로 나무가 지지대에 너무 조이지 않게 묶여있는지를 확인한다. 눈이 내리면 가지나 잎에 눈이 쌓여있지 않게 잘 털어주어야 하며 이는 눈의 무게에 의해서 모양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낙엽을 모아서 퇴비로 사용하려면 퇴비장소에 모아둘 때 잘게 잘라서 모아두어야 빠르게 퇴비화를 시킬 수 있다.

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잎에 해충이 모이는 경우가 있다. 살충제를 반복하여 주며 계속 살펴본다.

잔디

10월까지도 온도가 높아 많은 잡초가 성한 곳도 있다. 잔디위 잡초 제거는 필수이고 떨어진 낙엽을 치워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게 해주어야 하며, 영상 5도이상에서도 성장을 계속하게 되므로 이 이상의 온도에서 잔디깎기를 해주게 되면 높이가 4cm 이상이 되게 해주어야 한다. 서리가 내린 후의 잔디 위를 걸어 다니면 안되고, 새로운 잔디판을 깔는 작업을 더 추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어야 한다. 잔디에 여름에 쓰다 남은 비료를 주는 것도 삼가해야 하며, 이는 질소가 너무 많아 웃자랄 수 있으며 질병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칼륨과 인의 함유가 많은 가을용 잔디 비료를 주면 단단하면서 뿌리가 더 자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 시기에 제초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해충과 질병 확인

정원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면 질병이 해를 넘기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며, 병에 걸린 가지나 잎은 퇴비로 사용하지 말고 태우거나 따로 처리를 해야 한다. 장미에 생기는 검은 반점이나 사과나 배에 생기는 상처 또는 잎마름병에 걸린 식물도 소각을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적자색 잡초 종류

- (1) 바랭이 : 화분과 1년생 잡초이다. 초장 30~90cm, 폭 5~15mm 정도로 털이 없는 것 앞을 가지며 엽설은 담백색으로 엽초에는 백색의 잔모가 나 있다.
- (2) 참방동사나 : 방동사나과의 1년생 잡초이다. 황적색을 띠는 수염뿌리와 황금빛 이삭을 가지며 이삭 아래쪽의 잎이 이삭보다 길며 줄기는 삼각형으로 각이지고 총싹은 1~1.5cm의 달걀형
- (3) 쇠비름 : 광엽 1년생 잡초로 생장속도가 빠르다. 경엽이 다육질이고 부드러운 초장은 15~30cm 정도로 지면에 깔려 자라며 유식물은 적자색

과수잡초

- (1) 국화과의 다년생 잡초 잎의 뒷면에 털이나 있고 줄기아래 부위에 많은 가지를 내며 자엽은 녹색이고 잎자루는 자색으로 광택이 없다.
- (2) 망초 : 국화과의 1~2년생 잡초이다. 경엽전체에 길고 거친 털이 발생하며 줄기는 1~2cm 크기까지 직립하며 종자는 낙산 모양의 관모를 가짐
- (3) 쇠뜨기 : 광엽다년생 잡초 지형은 땅속 깊이 가로로 뻗어 마디마디에 지상경이 나온다. 지상경은 잎에 해당하는 영양경이 있으며 원주형으로 30~60cm까지 자라 마디에서 다수의 가지가 나온다. 육질은 부드러우며 원주형으로 포자를 살포시킨 다음 고사 한다.

모뉴먼트

syngenta

‘발아 예방효과가 우수’하고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효과와 긴 약효시간을 유지하여 가을에 1회 뿌려 봄까지 강력한 제초제



특징과 이점

- ▶ 다양한 잡초에 적용 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이다.
- ▶ 락 등 문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한다.
- ▶ 잡초 발생후 뿐만아니라 발아 전 사용시 예방효과가 우수한 제품이다. (묘소등지)
- ▶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약효를 발휘한다.
- ▶ 약효 지속시간이 길어서 오랜 기간 지속력이 있다.
- ▶ 한국잔디에 사용해도 잔디에 피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 방제 효과가 뛰어난 사진비교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정원의 텃밭정원의 시작은 씨앗에서

1. 따뜻하면 옷을 벗는 씨앗

따뜻하면 옷을 벗는 씨앗에는 토마토, 오이, 참외가 있다. 세 종류 모두 씨앗 주변에 미끌미끌한 젤라틴이 있다. 밀봉된 상태에서 발효시키면 젤라틴이 씨앗에서 잘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때 생긴 물질 때문에 반점세균병이나 반엽세균병, 궂양병 등이 예방된다.



토마토

과명: 가지과(Solanaceae) 학명: *Lycopersicon esculentum* Mill
원산지: 남미 안데스 산맥 태평양 방면 페루·에콰도르 일대
씨앗 수명: 3년

>> 채종을 위한 재배

채종	요기트기	식재	개화	채종	갈무리
4월 초	4월 초-5월 초	5월 초	6월 초	7월 중	7월 말

>> 재배

양파처럼 다양한 요리에 쓰임새가 많은 채소도 드물 것이다. 1년 내 내 식탁에 오르는 양파는 단맛을 내기 때문에 조미료가 없을 때도 큰 역할을 한다. 양파를 먹기 위해서는 수확하기 전부터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해야 한다. 가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늦가을에 본밭에 정식을 해 놓으면 겨울 동안 차가운 공기를 받아 튼튼해진다. 양파는 봄이 오면 자라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네. 잎줄기가 하나둘 쭉이기 시작하는 6월이 되면 수확 준비를 한다.

>> 재배

토마토의 원산지는 남미 페루의 안데스 산맥이다. 16세기에 유럽으

젤라틴이 있는 씨앗의 채종(오이)

1. 오이씨를 받을 때는 초록색에서 누런색(노각)이 될 때까지 줄기에 두었다가 수확한다.
2. 수확한 오이는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늘에 두어 더 익힌다.
3. 씨를 받으려면 플라스틱 통과 같이 필요하다.
4. 칼로 오이를 반으로 가르고 씨를 과일과 함께 숟가락으로 긁어낸다.
5. 긁어낸 오이씨와 과육을 비닐봉투로 싸서 플라스틱 통에 넣고 비닐 봉투로 다시 한 번 꼭 단 다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도록 하고 한나절 정도 두면 부글부글 거품이 생긴다.
6. 체에 거른 씨를 물에 담아 위로 떠오른 쪽정이를 버리고 가라앉은 씨만 골라낸다.
7. 골라낸 오이씨는 종이나 양파 망에 넣어 물이 잘 빠지게 하고 해가 질 때까지 수 시간 햇빛에 말렸다가 다시 그늘에 말린다.



1 토마토 어린묘



2 토마토 원예종별 전신

로 도입되었으며 처음에는 관상용으로 키우다가 18세기가 되면서 먹기 시작하였다. 토마토 하면 보통은 빨간색 토마토를 연상하지만, 노란색에서 보라색까지 다양하고 크기도 천차만별이다. 색과 크기만큼이나 맛도 다양한 아이들에게 토마토 화채를 만들어주면 골라먹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다.

토마토에는 리코펜(lycopene,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위에서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키고 산성식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이라고 하는 붉은 색소가 들어 있는데, 이 색소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클수록 진해진다.



4 토마토 정선

토마토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고, 공중 습도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실 재배를 많이 한다. 하지만 노지에서라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서는 잘 자란다. 보통은 토마토가 여름에만 수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순지르기를 잘해두면 가을 까지도 계속 따 먹을 수 있다. 열대 건조지의 남서 아메리카 원주민은 토마토의 줄기와 순을 따서 지면에 꽂기만 하는 정도로 씨를 틔우고 있다. 접목을 해서 토마토의 수명을 연장시키기도 한다. 접수로는 수확 시기가 긴 품종을 택하고, 대목으로는 병에 강한 품종을 사용한다. 토마토 씨는 아주 많은 솟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 전 하루 저녁 정도 물에 담갔다가 파종을 하는 것이 좋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토양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게 되는데, 수분의 변화가 급속하게 변하면 열매가 갈라지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토양 내에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배꼽썩음병이 나타난다. 질소가 과다하면 잎 끝이 둘둘 말리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주의한다.

>> 채종

토마토는 자가수분을 하기 때문에 품종 간의 교잡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채종 방법도 간단한 편이어서 자가채종한 품종이 몇 백 종류에 다다른다. 최근 품종은 꽃가루를 받는 기관인 암술머리와 꽃가루를 만드는 기관인 수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꽃가루 받기가 쉽다. 하지만 미니토마토 등 야생에 가까운 품종은 간혹 자연교잡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품종의 토마토를 한 장소에 심을 경우는 두둑을 여러개로 나누고 품종과 품종 사이에 콩이나 덩굴성 식물을 심어두면 교잡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 토마토는 첫 꽃이 피었을 때 정식하



3 토마토 원예종별 크기 비교



는 것이 땅에 뿌리도 잘 내리고 열매도 잘 맺는다.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면 가장 맛있어 보일 때 토마토를 수확해서 당분간 후숙시킨다.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과실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틈실하게 잘 자라는 포기에서 병충해가 없는 열매를 골라 표시를 해 두었다가 수확하는 것이 좋다. 2~3일 정도 후숙시킨 열매를 오목한 그릇에 넣는다. 약간의 물을 부은 다음 투명한 봉지 속에 넣어 온실이 나 따뜻한 곳에 두고 발효를 시킨다. 채종기에 따라 다소 방법의 차이가 있어, 열매를 통째로 그릇에 넣기도 하고 열매를 손으로 으갠 다음 그릇에 담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생기고 발효가 시작된다. 이것은 종자를 싸고 있는 젤라틴에 작용하는 세균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생겨난 항생물은 반점세균 병, 반엽세균병, 궂양병 등의 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단, 발효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씨에서 썩이 트기 때문에 주의한다. 날씨가 좋은 날에 온실에 넣어 두면 한나절 정도면 거품이 생긴다. 거품이 생기면 바로 종자를 꺼내서 체에 담고 흐르는 물에 씻는다.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살살 문지르면서 씻어낸다. 영근 씨앗을 골라내기 위해 물에 담가서 가라앉은 씨앗만 골라낸다. 젤라틴이 떨어지면 아주 가늘고 짧은 털에 둘러싸인 씨앗이 나타난다. 이 씨앗을 수 시간 햇빛에 말린 후 다시 그늘에서 말린다. 젤라틴이 제거되었다고는 해도 종이에 씨앗을 넣어서 말리면 달라붙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떼어내야 한다. 양파망 등을 이용하면 쉽게 떨어지고 바람도 잘 통하기 때문에 안심맞춤이다. 채종을 큰 규모 사업으로 하는 곳에서는 몇 톤씩 되는 과즙에 염산을 넣어서 종자를 단시간에 깨끗하게 한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세균성 궂양병을 예방할 수 없다.

오이

과명: 박과 학명: *Cucumis sativus* L.

원산지: 인도 서북부 히말라야 씨앗 수명: 4~10년

≫ 재종을 위한 재배

재종	모기르기	식재	개화	채종	갈무리
4월 초	4월 초~5월 초	5월 초	6월 초	7월 말	7월 초

≫ 재배

산에 오르기 전 가랑 속에 꼭 쟁겨 넣는 오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껍질을 까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고, 씹을 때 나는 아삭아삭 소리가 경쾌하다. 오이는 1,500년 전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1년 내내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토종 오이의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하다. 크기는 작지만 단단하고, 오이 표면에 가시 같은 돌기들이 촘촘하게 나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손을 찔리기도 하지만 오이를 좋아하는 별레들에게 이 가시가 큰 장애물이란 병충해를 막아준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오이들은 대부분이 마디 오이로, 줄기의 마디마다 오이가 열린다. 수확 시기가 하루만 늦어져도 그 모양이나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집이 올라 도톰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수확한다. 또한 가는 줄기의 보호를 위해 지주를 튼튼하게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바람막이도 필요할 수 있다. 거름으로는 계분을 주기도 하지만 계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엽이나 부엽토를 섞어주면 더욱 좋다. 단 계분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쓴맛이 강해지므로 주의한다.

≫ 채종

오이씨를 받기 위해서는 두 포기 이상을 준비하는데, 다섯 포기에서 열 포기정도가 적당하다. 다른 작물과는 교잡하지 않지만, 같은 오이끼리는 교잡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 품종을 한 장소에 심을 경우는 인공수분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오이는 열매 하나에서 아주 많은 씨앗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섯 포기 정도 심었을 경우 두세 개의 열매만 남겨 두고 수확하도록 한다. 꽃가루받이가 잘되었을 경우

는 한 개의 열매에서 100개 이상의 씨앗을 얻을 수 있다. 토종 오이의 경우는 열매가 점점 커지고 노란색으로 변하며 껍질이 거칠거칠해질 때까지 땅굴에 달려 있게 한다. 노각이 될 때까지 두는 것이다. 수확한 오이는 수일간 그늘에서 후숙을 시키는데,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되도록 한다. 후숙시킨 오이는 칼로 세로로 자른 다음, 숟가락으로 종자와 속살을 같이 긁어낸다. 긁어낸 것을 둥근 불이나 국그릇 등

에 넣고, 비닐봉지로 싼 후 종자 주변에 붙어 있는 젤라틴이 잘 떨어질 때까지 따뜻한 온도에서 발효시킨다.

날씨가 좋은 날 온실에 넣어 두면 한나절 혹은 하루 정도면 충분히



2 오이의 성장모습

다.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발효 과정을 거치면 오이에 생기는 병을 막을 수 있다. 발효시킨 씨앗은 물로 씻어낸다. 물에 떠오르는 털 여분 씨앗들은 흘려보내고, 아래에 가라앉은 영근 씨앗만 이용한다.

금방 씻은 씨앗은 구멍이 촘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양파망 등을 이용해서 말리는 것이 좋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마른다.



4. 노각

참외

과명: 박과 학명: *Cucumis melo* var. *makuwa* Makino

원산지: 아프리카·인도·중국 씨앗 수명: 3년

≫ 재종을 위한 재배

재종	모기르기	식재	개화	채종	갈무리
4월 초	4월 초~5월 초	5월 초	5월 말	7월 중	7월 말



2 토마토 원예중별 전시

≫ 재배

참외는 수박과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여름에 가장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과채이기도 하다. 노란 껍질 속에 흰색 씨앗이 모여 있는데, 이 씨앗은 해열제로서의 효능이 있으며 기름을 짜서 이용하기도 한다.

참외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키워보기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지만 성공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온에는 적합하지만 대부분은 온실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6월 장마가 큰 장애 중의 하나이고, 8월의 오랜 건조 기후도 문제되기 때문이다. 참외 뿌리는 토양 내에서 얇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건조기가 이어지면 생육에 지장을 일으킨다. 뿌리는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마 기간의 토양 내 수분이 생육을 방해한다.

참외를 오랫동안 수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순지르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텃밭에 들 때마다 보이는 대로 참외 순을

따주면 잎도 무성하지만 열매도 튼실한 참외를 얻을 수 있다.

≫ 채종

참외는 같은 박과 채소인 오이나 수박과 교잡하지 않지만, 멜론과 교잡하기 때문에 4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원종의 경우는 이보다 긴 800미터의 거리가 필요하다.

특히 참외는 우리나라처럼 장맛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노지 재배가 어렵다. 대부분의 참외는 온실에서 재배되고 있다. 꽃이 피는 시기 도 장마철과 겹치기 때문에 수확할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 장마를 피하기 위해서는 6월 중순에 씨앗을 뿌리고 노지에 옮겨심기를 하면 8월에 수확이 가능하고, 달고 맛있는 참외를 먹을 수 있다.

꽃은 매우 작으며 암꽃이 피면 3/4 정도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처음에 핀 암꽃에서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순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부지런히 순지르기를 해준다. 튼튼한 모종을 골라서 심고, 열매가 익기 시작하면 향기가 좋고, 색이 진하며, 과육이 두꺼운 참외를 고른다. 먹기 좋은 열매를 수확하면 2일 정도 후숙시킨다. 열매를 갈라낸 후 씨앗을 물로 씻고, 물에 뜨지 않는 영근 씨앗들만 골라 물기를 뺀 후, 일주일 정도 말린다.



열매



사과참외



(추식구근)

튤립, 수선, 무스카리

알리움, 크로커스, 아네모네 등

- ◆ 아름다운 추식구근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 ◆ 기존의 야생화 화단, 꽃잔디 화단, 잔디밭 등 어디든지 식재가 가능한 전천후입니다.
- ◆ 우리꽃은 다양한 추식구근을 공급합니다.

품목	단가/(원)	식재수/㎡	비고
튤립(일반)	320~350	30~50	
튤립(스페셜)	500~600	30~50	
수선화	600	30~50	
크로커스	400	80~100	
알리움기간타움	3,000	9~16	
무스카리(보라)	300	80~100	
무스카리(하양)	500	80~100	
무스카리(분홍)	800	80~100	1,000개 한정판매
무스카리(노랑)	800	40~50	1,000개 한정판매
하얀소이데스	500	80~100	
아네모네블란다	500	80~100	

디자인 및 식재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회사인 우리꽃에게 문의하십시오.
미리 준비해야 우량의 구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우리꽃영농조합법인
URISEED COMPANY

T. 031-634-7990 F. 031-634-7991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조경가든대학 '이천그린아카데미 7기' 현장



3강 정원 의 이해, 일죽 '마음의정원' 답사

과정 안내

주 최: 경기농림진흥재단 주관: 우리꽃연구소

교육기간: 2015년 8월 26~11월 25일(매주 수요일)총 14강 / 하반기 마감!!

* 2016년 상반기 과정 추후 공지!!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 교육장

수강료: 65만원(경기도 거주자에 한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40만원 지원, 자부담 25만원)

강좌혜택: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및 수료증 제공

교육문의: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강좌소개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의 생생한 실습현장에서 당일 배운 이론을 적용해봅니다.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합니다.

매주 우리꽃 농원을 방문하는것만으로도 정원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꽃 교육의 중심강좌로 그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강의순서	강의일정	강의내용	교수명
제 1강	08월 26일	식물환경	박광영
제 2강	09월 02일	채소정원조성	조남길
제 3강	09월 09일	정원이해	서수현
제 4강	09월 16일	정원계획설계	서수현
제 5강	09월 23일	야생화종류	박광영
제 6강	09월 30일	식재관수	김광두
제 7강	10월 07일	정원답사	김영채
제 8강	10월 14일	병해충관리	이종범
제 9강	10월 21일	수목종류	김광두
제 10강	10월 28일	수목전정	박광영
제 11강	11월 04일	실외정원	김광두
제 12강	11월 11일	실내정원조성	왕금옥
제 13강	11월 18일	비배잔디	김광두
제 14강	11월 25일	식물번식	박광영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문의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마을정원 (Community Garden)연재1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치유와 농사 그리고 정원이 만나는 마을정원 (행복농장)



판매용 허브 모종들

충남 홍성군 장곡면



행복농장 간판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위치한 '행복농장'은 2013년에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보존증진센터에서 후원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행복농장에서는 정신장애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로 채소와 꽃모종을 생산하는데 주요 농작물로는 방울토마토와 고추, 멜론 등을 생산하고, 초화류도 키워 원예적인 요소도 함께하고 있다.

채소의 경우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체험활동을 하면서 수확의 기쁨과 땀 흘리며 일하면서 느끼는 노동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허브와 초화류는 농사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향기를 통한 세세한 후각의 발달을 돕기도 한다.



화단의 한편을 장식하는 격자무늬의 지주들을 배경으로 숙근버베와 흰색텔이 보송보송한 램스이어 그리고 국화과의 에키나세아가 핑크빛으로 찬란하다

행복농장으로 들어서는 입구는 꽃으로 가득하다. 채소를 키우기 위해 마련된 비닐하우스만 있던 곳에 화단을 만든 것이다. 작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화단에는 농장에서 키운 갖가지 초본류가 심겨져 봄부터 겨울까지 무지개 색의 빛깔로 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농장앞길을 지나는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고, 처음에 비닐하우스만 있었을 때보다 훨씬 아늑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50평쯤 되는 밭에 꽃을 심어 화단으로 꾸미는 일도 마을 주민들과 마을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정원의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 물이 있는 곳에 새들이 모이듯, 꽃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행복농장에는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누구나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농장의 자립을 위해 키우고 있는 허브들. 생일을 축하해서 생협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채소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는 멜론. 유기농으로 키워 더욱 맛있다



열매가 예쁜 미니토마토를 회원에 재배해 판매를 하기도 한다

행복농장에서는 정신 장애인이나 탈북자가족, 혹은 자살예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세 차례 4박5일 과정으로 농사와 꽃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이기 는 하지만, 2년의 경험을 통해 농업과 원예가 정신 건강을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에서는 행복농장을 모델로 인근의 군에도 행복농장과 같은 형태의 농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장에서 생산한 꽃모종들



농장 한 편에 조용하게 자리잡고 있는 나무 화분



식물 식재용 화분들이 가지런히 정리 정돈 된 모습



작업하기 편하게 제작된 모종 출하용 작업대(테이블)

장애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면의 장애를 농업과 원예를 통해 소통한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농장의 작은 실천이 우리사회와 개개인을 연결 시켜주는 '커뮤니티 가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안에 꽃이 있고, 치유의 마음이 있으며, 농업의 결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씨드 완성품! 전시용, 행사용, 효과만점의 빅사이즈 화분 화 통



빅사이즈, 모델하우스, 지역축제 등
행사용으로 안정감있음!
직재특 곧바로 완벽한 정원 조성!

- ◆ 우리꽃 빅사이즈 화분용 상품은 충분히 자란 정원용 식물을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 오랫동안 재배하여 큰 포기로 자란 식물로 화분 혹은 기타의 용기 등에 심겨져 이용 후 바로 그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이제 심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 제 모습을 보여주던 정원에서 심고 나면 곧 바로 아름다운 최상의 정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031.634.7990



아름다운 구근 식물

너도엘러지 속 (Genus Dodecatheon)

다년생 식물의 14종의 속으로 대부분 축축한 초지나 높은 알프스 지방의 초원, 간혹 북미의 삼림지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은 달걀형에서 뒤집어진 창형, 수저모양, 혹은 타원형의 로제트와 털이 없는 잎이 있다. 매달려 있는 산형화서, 시클라멘이나 엘레지아와 같은 꽃은 꽃잎이 뒤집어지고 길고 포인트 형태를 한 아치를 이루는 줄기 위에 핀다. 보통 개화 뒤 여름에 휴면을 한다. 이들은 삼림지나 암석정원에 적합하다. 내한성 대부분 내한성을 지녔으나, *D. clecelandii*는 이른 서리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재배 축축하나 배수가 잘 되고 부식토가 풍부한 토양에 재배 기간 동안 넉넉한 양의 물이 있고 햇빛이 잘 들거나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곳에서 기른다. 여름 휴면 기간 동안, *D. clecelandii*와 *D. hendersonii*를 구근 틀에 넣는다.

증식 넓은 묘판상자에 성숙하자마자 파종을 하고 종자는 파종을 하기 전 추위에 노출되어야 발아할 것이다. 봄에 분주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어린 잎은 민달팽이나 달팽이가 먹을 수 있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민달팽이가 피해를 주기도 한다.



아국적이지만 친근한

디기탈리스 속 (Genus Digitalis)

디기탈리스는 이년생과 수명이 짧은 다년생 식물의 22종의 속으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넓은 삼림지와 소수의 풀이 있고 꽃이 있는 언덕, 그리고 알프스 지방의 초지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단순하고 물결모양 혹은 튼튼한 줄의 주로 타원형에서 창형, 거꾸로 된 달걀형이 대부분이다. 로제트 상태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꽃대를 올리는 데 매우 아름다운 큰 꽃을 메 단다. 꽃잎 안에 반점이 있고 화색은 주로 핑크색이나 하양, 빨강의 꽃이 핀다.

대부분의 디기탈리스(영명: foxgloves)는 외래종으로 화단의 가장자리나 삼림지에 적합하다. 모든 부분은 먹었을 경우 심각한 복통을 일으킨다. 잎과 접촉시 피부 염증이 있다.

내한성이 완전한 것부터 서리 이상의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종류는 겨울 부직포 등으로 월동을 덮는다. 재배는 대부분 부식토가 많고 부분적으로 그늘진 장소를 선호하나 아주 건조하거나 아주 축축한 토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양에서 기른다. 몇 종은 스스로 많은 씨를 뿌리므로, 묘목이 필요하지 않는 한 개화 후 시든 꽃을 제거한다.

늦봄 증식, 냉상이 된 화분에 파종을 한다. *D. puerperal*는 늦봄에 적파를 하게 되면 이듬해 꽃을 피운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진딧물과 응애와 흰가루병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맑은 애기 별

애기나리 속(*Genus Disporopsis*)

지하경을 갖는 상록성과 다년생 식물 등 4종의 속으로 한국은 산지의 수림 하에 군생하고 중국의 고지대에 있으며, *polygonatum*과 동족이다. 반점이 있고, 어두운 녹색 줄기는 창형의 타원형 왁스질의 잎이 있고, 다 자라면 새 성장을 위해 시들어 죽는다. 매달린 좁은 벨 모양의 꽃은 잎의 옆 부분에서 단생하거나 짝으로 난다. 삼림지 정원에서 기른다.

내한성은 뛰어나고 재배는 촉촉하나 배수가 잘 되고 부식토가 많고 잎이 많은 토양에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곳에서 기른다.

종식은 가을이나 봄에 모판에 파종을 하거나 봄에 지하경을 나누어 준다.



도로니쿰 속(*Genus Doronicum*)

낙엽성, 지하경을 갖거나 구경을 지닌 다년생 식물의 35종의 속으로 삼림지, 관목 숲, 초지 등에 알맞다. 유럽, S.W.아시아, 그리고 시베리아에 있다. 이들은 호생의, 타원형에서 난형의 심장형 바탕의 기저엽이 있고, 창형에서 난형 혹은 가늘고 긴 줄기 잎들이 있다. 테이지처럼 생긴 노란 두상화는 홀로 피거나, 취산꽃차례 같은 산방꽃차례에 피며, 이들은 꽃꽂이에 좋다. 화단의 가장자리나 삼림지에 기른다.

내한성 뛰어나고 재배는 부분적으로 그늘이 지거나 dappled shade에 촉촉하고 부식토가 풍부한 흙에서 기른다.

*D. orientale*과 그 재배종은 물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뿌리가 썩는 경향이 있고, 물기를 필요로 하나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적당히 비옥하고 가급적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모래토양에 기른다.

종식은 봄에 화분이나 파종상자에 파종하고 이른 가을에 분주를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뿌리가 썩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몇 종은 흰가루병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Special Issue

정원속 들여다보기

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소재로는 일년초, 다년초, 관목, 교목 등 식물이 필요하고 그 외 오브제 및 구조물 등이 뒤따라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란 숙제가 앞에 놓여 있다. 이번호에는 다양한 정원을 소개하고 식재방법과 이용된 소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1.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의 향연

다양한 식물을 이용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혼합식재정원이다. 봄꽃이 지고 7월 여름의 모습이다. 중앙부에 에키나와 후룩스, 가우라 꽃이 한창이다. 그리고 꽃도 좋고 잎의 향기도 좋은 배초향과 모나다가 피기 시작한다. 앞쪽으로는 꼬리풀 리틀블루, 노랑 숙근코스모스, 잎의 색깔이 좋은 적엽휴케라가 자리를 잡고 있다. 다른 꽃들 사이에서 절굿대의 보라송이가 위로 올라오고 있다. 산부추는 가을꽃을 피기 위해 힘차게 잎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2. 순백의 깨끗함으로 물들이다.

하얀색 꽃을 피우거나 잎이 하얀색을 띠는 식물로 혼합식재한 화이트정원이다. 키가 큰 무늬억새가 포인트로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되어져 있고 그 주변으로 숙근사루비아 화이트, 사포나리아 코튼이 만개되어 있다. 꽃백합 '나보나'가 금새라도 활짝 필 기세로 꽃봉오리를 머금고 있다. 옆 라인쪽으로 잎의 느낌이 좋은 무늬염주그라스가 점식되어져 있고 흰꽃매발톱은 이미 꽃을 피우고 양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갈한 느낌을 주며 여기에 분홍색꽃을 가진 소재를 같이 어울려 심어도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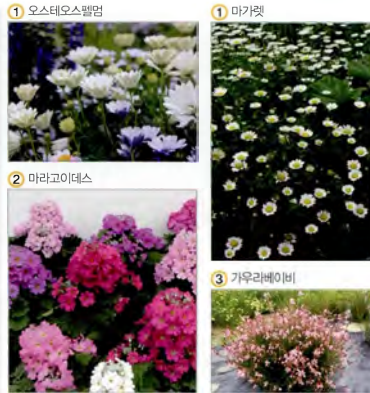


3. 구름위의 정원

기존의 일정구역별로 나누어서 1년초를 식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소재들을 반복적으로 섞어서 식재한 혼성식재 정원이다. 자연스럽게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은 어떤 디자인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가져다 준다. 중앙에 키가 위로 자라는 가우라베이비를 식재하여 중심을 잡아준다. 나머지 공간에는 화이트가 중심이 되는 컨셉으로 하얀색의 마가렛과 오스테오스펠럼이 자연스럽게 반복식재 되었고 그 사이 사이에 분홍색의 마라고이데스가 포인트로 들어가 마치 하얀 눈꽃속에서 분홍등불을 밝힌 듯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① 오스테오스펠럼 + 마가렛 ② 마라고이데스 ③ 가우라 베이비



4. 꽃바다에서 솟구친 돌고래의 비상

앞쪽은 일년초로 혼성식재된 정원으로 뒤쪽으로는 다년초인 칸나와 역새, 루드베키아가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전체적인 베이스 식물로 황금고구마가 식재되어 분위기를 밝게 해준다. 그 사이에 사루비아, 임파치엔스, 메리골드가 혼성식재되어 있다. 그 뒤로 붉은 빛의 칸나와 역새 모닝라이트가 배경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그 사이로 루드베키아가 활짝 피어있다. 정원의 한켠에서 꽃을 한껏 뽐낸 돌고래의 비상이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더욱 돋보인다.



① 황금고구마 ② 사루비아 블루빅토리 ③ 임파치엔스
④ 메리골드 ⑤ 역새 모닝라이트 ⑥ 루드베키아 ⑦ 칸나



5.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소연못정원

조경박람회 행사장에 연출한 소연못정원이다. 대상지에 초탄을 이용하여 구름을 만들고 고무로된 펀드라이너를 깔고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 연못안으로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물과 잘 어울리는 퍼틸(황토색의 모래)과 호박돌로 마감을 하고 곳곳에 식물들을 배치하였다. 먼저 식물의 배치를 보면 호스타가 일정간격으로 연못을 감싸고 있어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무늬갈풀, 부채붓꽃, 대황풀로 뒤쪽 스크린을 쳐줘서 앞의 식물들을 돋보이게 했음은 물론 외부와의 경계를 주어 훨씬 아늑하게 연출을 했다. 물 주변으로는 아스틸베가 붉은 계열의 꽃으로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잎의 질감이 좋은 아이스댄스, 하코네클로아, 홍피 등 키가 크지 않은 그라스를 물 주변과 외곽쪽에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그리고 무늬피막이, 무늬엔젤리카, 황금리시마키아 등 잎의 색깔이 좋은 식물들이 요소소에 자리를 잡고 있다. 물속에서 생장이 가능한 무늬글리세리아, 무늬어성초가 물 가장자리 얇은 물속에 심겨졌고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 안쪽으로 가정에서 기르기 쉬운 미니수련이 물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뒤쪽의 초롱꽃켄트벨은 초록색의 배경에 보석을 뿌린 듯 반짝인다. 그 외 무늬종을 중심으로 빈자리를 채워 넣어주면서 전반적으로 물과 식물들이 잘 어우러지는 고급스러운 연못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0여종의 식물을 사용하면서 산만해 보이지 않고 통일감을 주고 있다. 하나하나 품종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잘 살려내 주었고 적절한 무늬와 질감을 가진 재료의 사용으로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① 옥잠 맘마미아 ② 옥잠 팜파레 ③ 옥잠 엘레강스 ④ 아스틸베 페더 ⑤ 무늬갈풀 페세이 ⑥ 초롱꽃 켄트벨
⑦ 부채붓꽃 ⑧ 무늬엔젤리카 ⑨ 하코네클로아 ⑩ 홍피 ⑪ 무늬어성초 ⑫ 무늬글리세리아
⑬ 무늬피막이 ⑭ 아이스댄스



6. 골프가 즐거운 또다른 이유

골프장 코스내 티와 인접한 곳에 조성한 화단으로 차레를 기다리면서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길게 라인을 형성하며 연출한 정원으로 앞쪽으로 꼬리풀 리틀블루가 길게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꼬리풀 이브가 연결되어져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다. 꼬리풀 리틀블루 다음라인으로 노랑속근코스모스가 노란물결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라인의 아스타가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 힘차게 위로 뻗고 있다. 배경이 되고 있는 암석절개지 앞으로 키가 큰 붓들레아와 무늬역새가 뒤를 받쳐주고 있다. 각각의 꽃들이 시원한 느낌으로 펼쳐지고 있다.



1 꼬리풀 리틀블루 2 꼬리풀 이브 3 노랑속근코스모스
4 아스타 발라드 5 붓들레아 6 무늬역새



7. 고산의 느낌 그대로

강원도 정선의 고지대분위기와 고목이 잘 어울릴 수 있게 식물의 질감을 잘 살려 고산 분위기를 연출했다. 먼저 어두운 색의 고목과 흰색의 바닥을 연결하는 식물로 무늬종이 역할을 한다. 로니세라의 황금색과 흰줄무늬대사초, 산색조팝, 무늬엔젤리카, 흰줄무늬사사 등의 무늬종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그리고 속새의 경우 디스플레이시 적절하게 잘 배치하면 뛰어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애기세덤은 이끼가 주는 느낌을 표현하였고 바닥의 마감을 깨끗하고 밝은 느낌의 화산석(그린키퍼)을 이용하여 어두운 색의 고목과 대조를 이루어 주재료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1 로니세라 황금 2 흰줄무늬대사초 3 배초향 4 속새
5 애기세덤 6 흰줄무늬사사 7 산색조팝 8 스텔라원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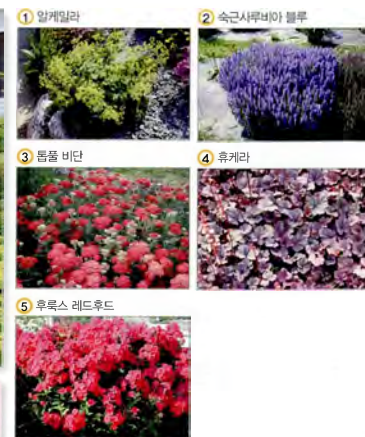


8. 사랑의 정원

봄을 보내고 여름의 첫 자락을 수놓고 있는 정원이다. 앞쪽에 알케밀라의 노랑색 꽃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뒤쪽으로 속근사루비아의 블루색꽃이 알케밀라의 노랑색꽃과 잘 대비가 된다. 그 뒤로 휴게라의 꽃대가 위로 쭉쭉 뻗어있고 중앙에 후룩스는 6월말이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톱풀 비단이 그 위로 붉은 카펫을 선보이고 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쌍의 조각품이 너무 다정스러워 마치 색색의 꽃들이 한쌍의 연인을 반겨주는 듯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사랑의 정원이라 붙여보면 어떨까.



1 알케밀라 2 속근사루비아 블루 3 톱풀 비단
4 휴게라 5 후룩스 레드후드



9. 감미로운 파스텔톤 풍경

잔디밭 옆으로 펼쳐지는 1년초 혼성식재 정원. 앞쪽으로 백일홍과 아게라툼 2종류의 꽃이 혼성식재 되어있다. 단지 2종류로 식재되었지만 단조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백일홍은 분홍과 하양을 아게라툼은 보라와 하양색 등 각각 2가지 품종씩 섞어서 배색을 했기 때문에 단정하면서도 다양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전체적인 모습은 아게라툼이 베이스로 받쳐주고 백일홍이 위쪽으로 펼쳐진 모습이다. 뒤쪽라인에는 순백의 베고니아가 병풍처럼 펼쳐지면서 전체적으로 더욱 맑은 느낌을 전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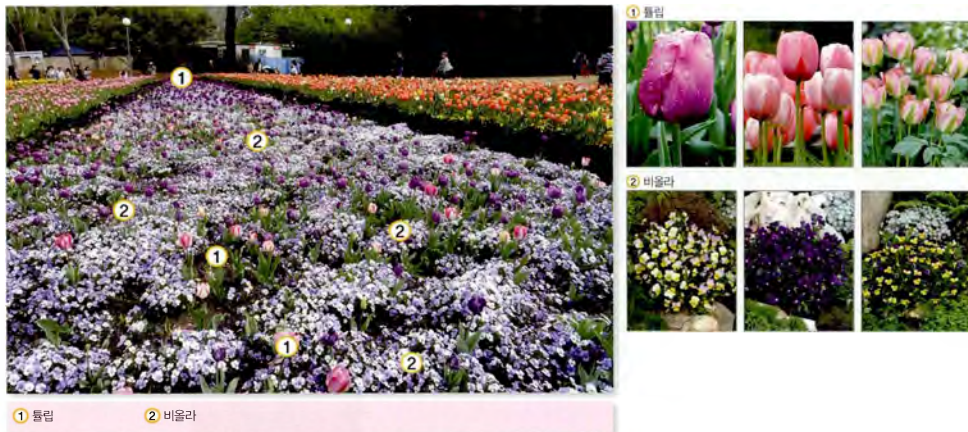


1 백일홍 2 아게라툼 3 베고니아



10. 혼자도 좋지만, 함께라면 더욱 좋아

기존에는 단지 튤립 등 추식구근으로만 식재해 왔는데 이러한 단조로운 패턴에서 벗어나 추식구근과 일년초를 혼성식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대표적인 추식구근인 튤립의 다양한 품종이 정원 전체적으로 골고루 피어있고 하부에는 연보라색의 비올라가 베이스식물로 튤립과 조화롭게 피어 있다. 튤립, 수선 등 추식구근이 있고 베이스식물로 같은 시기에 피는 비올라, 데이지, 오스테오스펠렘, 마가렛 등의 일년초를 심거나 숙근초인 꽃잔디를 심어 최상의 봄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11. 꿈속을 걷는 이 기분

북서울꿈의 숲 옥상에 조성된 혼성식재 정원이다. 아름다운 색감을 자랑하는 다양한 식물들로 구성된 정원으로 방문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그라스와 숙근초와 잘 어울어진 정원으로 그라스인 무늬새가 정원 전체적으로 포인트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주소재로 후룩스, 에키나, 코레우리가 한창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다. 그 사이사이에 꽃백합, 금계국 왜성사계, 가우라 등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며 리아트리스, 아스타 등 또다른 많은 정원식물들이 뒤를 이어 정원을 수놓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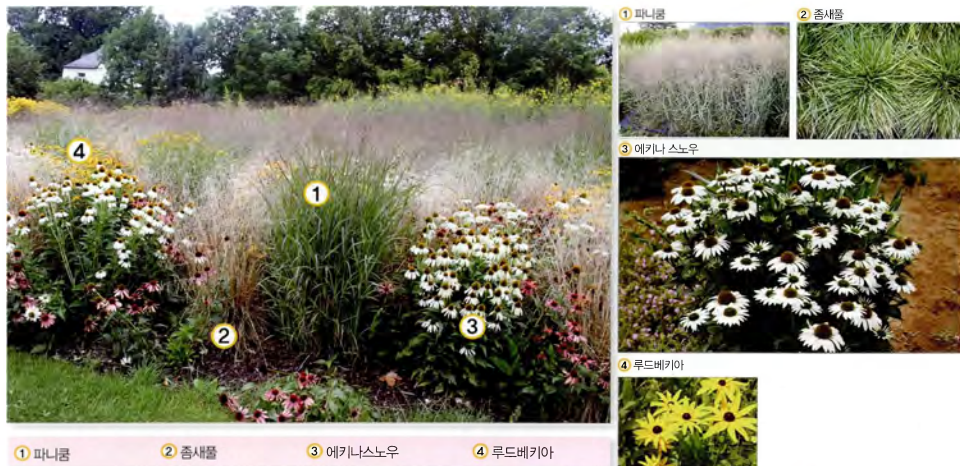
12. 낮잠이 그리운 노랑정원의 산책

노란색으로 물들은 갈라정원이다. 중앙에 키가 큰 마타리와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톱풀 골드가 우뚝 서있어 중심을 잡고 있다. 양 옆으로는 한쪽에 잎의 색감이 좋은 황금조팝이 열식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노랑숙근코스모스, 코레우리 하디크림, 오렌지숙근코스모스, 스텔라원추리 등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노란색으로 아름답게 수를 놓고 있다. 포인트로 중간중간 솟아나오는 노란색 꽃백합이 다른 꽃들 사이에서 탐스럽게 피어오르고 있다. 노랑정원으로 산책, 생각만해도 즐겁지 않은가.



13. 그라스와 숙근초의 만남

그라스와 숙근초가 잘 어울리도록 식재된 혼성식재 정원이다. 그라스중에는 키가 큰 파니쿨이 메인소재로 식재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키가 작은 종새풀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사이로 분홍색, 하얀색 에키나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뒤쪽으로 루드베키아가 그라스속에서 한창 노란색을 뽐내고 있다. 그라스와 숙근초를 잘 혼성식재하면 그 어떤 경관보다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정원연출이 가능하다. 그라스 중 파니쿨, 무늬새, 물리니아 하이드 등 직선형으로 자라는 종류가 혼성식재로 좋은 소재이다.



오아시스(박스정원)

출원번호 10-2014-0137480

물관리 NO!

옥상, 건물 앞, 교통섬, 베란다, 도로변 등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 가능!!



오아시스 특징

1. 건물앞, 교통섬, 도로변, 공원 등지의 화단조성이 힘든 곳에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암석가든형, 혼합가든형, 텃밭가든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원하는대로 선택가능합니다.
3. 설치가 편리하고 교체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4. 저수판이 있어 1회 관수로 오랫동안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분	규격	*부가세 별도 단가
오아시스	1,000×1,000×300	400,000
	1,000×1,000×400	500,000
	1,000×1,000×600	600,000

* 식물, 토양 별도 구매

* 10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오아시스(박스정원)의 유형

암석가든형

돌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암석가든



혼합가든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미니정원



텃밭가든형

채소와 꽃들을 이용하여 연출한 도시텃밭형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T. 031-634-7990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 입니다.

종자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꽃묘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프러그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삽수 프러그 등

구근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조경용 수목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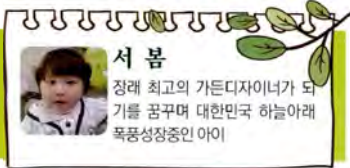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행복을 전합니다. 클로버 '초콜릿 행복'



육신복신한게 정말 잔디대용으로 더욱 좋은 소재입니다.

클로버하면 바로 연상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잡초'. 그 만큼 번식력이 강해서 한번 뺏어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 초기에 잡지 못하면 속수무책이죠. 물론 외국을 여행하신분들은 종종 가로수 나무아래 화단이 클로버로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셨을거예요. 워낙 지피력이 좋고 나무아래 그늘아래에서도 생육이 좋아 화단용으로 식재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잡초가 될 수도 있고 조경용 소재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잎이 작고 매우 조밀한 클로버를 개발하여 잔디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클로버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립니다.

답답에도 잘 견디고 특히 잔디처럼 깎아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그 만큼 관리가 용이하고 관리비가 절감되기 때문이죠. 소재의 특성상 경관성 뿐만 아니라 그 기능성에 따라 좋은 소재로 개발 및 발굴이 가능합니다. 클로버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발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소개할 클로버 '초콜릿 행복'은 국내 '우리꽃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품종 클로버로서 앞으로 이용가치가 많은 소재입니다. 잎이 흑갈색으로 세잎(행운), 네잎(행운), 다섯잎(사랑)이 같이 나오는 이색적인 품종입니다. 잎이 매우 조밀하고 생육이 강건해 어디에서나 잘 자랍니다. 일반 클로버와 마찬가지로 답압에 강하여 잔디대용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잎의 색감이 좋아 문양을 연출할 때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양



세잎(행운), 네잎(행운), 다섯잎(사랑)이 같이 나오는 이색적인 클로버 품종

클로버 '초콜릿 행복' 이모저모



하분, 박스정원에 디스플레이용으로 좋아요



가정에서 손쉽게 기를수 있는 분화용으로 좋은 소재입니다



세잎, 네잎, 다섯잎 클로버 모두 찾았어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네잎클로버



제 귀에 꽃은 클로버 이쁜가요?



강동선사문화축제 포토존에 이벤트용으로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코스모스의 새이름

초콜릿코스모스



- 달콤한 초콜릿향의 아름다운 꽃
- 5월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 분지력이 좋아 꽃수가 많다.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관목
시대

정원의 필수선택 조팝 골든바(Spiraea)

봄이 오면 우리 산야에 지천으로 피는 대표적인 꽃은 무엇일까. 진달래, 개나리, 그리고 조팝나무이다. 조팝나무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산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조팝나무는 4월말이면 하얗게 꽃을 피워 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관목이다. 특히 바람에 실려오는 달콤한 꽃향기는 봄의 향기이기도 하다. 이번에 소개하는 관목은 조팝나무를 개량하여 한 차원 높은 관목소재로 개발한 조팝 골든바이다. 현재 품종출원중인 소재로 경관적, 기능적으로 매우 유망한 조팝나무이다.

아름다운 잎, 황금색 조팝나무

봄이면 하얗게 꽃눈을 피우는 조팝나무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좋지만 꽃이 지고나면 평범한 관목으로 돌아가고 만다. 조팝나무는 꽃이 피는 그 시기에만 사람의 시선을 모으지만 신개발품종인 조팝 골든바는 봄부터 가을까지 3계절을 주도해가는 조팝나무이다. 봄이면 하얀꽃을 줄기 가득 메우는 것은 일반 조팝나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지만 봄에 나오는 새순은 황금색으로 나와 꽃이 지고 난뒤에도 관상가치가 뛰어난 관목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면서 10월 중순부터 조금씩 단풍이 들면서 11월이면 빨간 단풍으로 옷을 갈아 입는다. 황금색잎과 단풍이 아름다운 조팝으로 조경용으로 안정맞춤인 관목소재이다. 생육 또한 강건하여 빨리 자라고 배수가 잘 되는 양지와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고 단지 진딧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때 적기에 방제만 해준다면 문제가 없다.

울타리용 또는 열식으로 식재한 곳에서는 알맞은 키로 전지해주고 측지를 잘라주면 좋은 형태를 유지한다. 독립수로 재배도 가능하여 이때에는 모양에 맞게 측지를 전지해주면 된다.



아름다운 황금색잎은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다.

띠녹지, 생울타리용, 경계용, 포인트용으로 좋은 관목

그 이용성을 살펴본다면 도심에는 띠녹지가 많이 생성되어 있다. 띠녹지의 적응수종은 일단 관리가 용이하고 생육이 강건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조팝 골든바는 적합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어떠한 관목에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도시의 띠녹지를 채울수 있는 중요한 소재로 자리를 잡으리라 예상해 본다. 띠녹지 전체를 조팝 골든바로 채워도 좋고 아니면 배경이 되도록 뒤쪽라인으로 열식하고 앞쪽으로는 다른 관목 또는 야생화로 식재해도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취동나무 등 생울타리용으로 사용했던 관목소재 대용으로도 좋고 아파트 등에 관목적용시 열식용 소재로 활용하면 좋은 소재이다. 특히 잎의 색감이 좋아 포인트소재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고급스런 연출이 가능하다.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관목으로는 한계가 와 있기때문에 앞으로 관목시장은 다변화 될것이고 현장에서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해서는 경관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관목소재가 필요하다. 다시말하면 한계절 좋은 그런 소재가 아니라 꽃도 좋을 뿐만아니라 잎의 색감도 좋은 그래서 연속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관목소재가 필요해 진 것이다. 이런면에서 조팝 골든바는 꽃과 잎이 모두 좋은 신소재로서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관목소재이다.



황금색잎 사이로 통성하게 피어있는 하얀 꽃무리



10월중순이면 잎에 빨간색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가을 단풍이 또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봄 이 시작되기전 3월10일 개화용
구근혼합매트

- ◆ 추식구근과 일년초의 혼성식재
- ◆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경관 연출
- ◆ 매트형태로 식재가 편리

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3월10일~20일 사이에 개화되어 현장설치가가능한 구근매트 예약주문 받습니다.

가든엔씨앗 꽃 양귀비
가을에 파종하세요!!

양귀비는 가을 파종이 적기입니다.

정원용 꽃씨봉투, 대면적용(kg단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우리꽃연구소 031.634.7990



정원화로 좋은 우리 야생화

구절초(경기도파주시)백색지 문화수목원

백색의 향연 - 구절초

가을 화단에 단골로 등장하는 꽃이 구절초(九節草)다. 우리 산야에서 흔히 자라는 야생화로, 음력 9월 9일에 꺾어 말린 것을 약용한다 하여 이름 붙여진 꽃이다. 예로부터 구절초가 약초로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구절초의 미적 가치에 주목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런 구절초를 맨 처음 관상화로 바라본 건 누구였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주변의 아름다움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을 테니 구절초를 최초로 자신의 뜰 안으로 들인 이는 평범치 않은 집안의 심미안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 같다.

가을이면 대개는 국화를 많이 심어 기른다. 국화는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꽃이다. 중국 원산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국의 감국과 산구절초와의 교잡종일 가능성이 크다. 국화의 야생 원종일지 모를 구절초가 이제는 본래의 제 모습으로 화단과 정원에 나타나 국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백색의 향연을 펼치니 저희들끼리는 격세지감을 느낄지 모르겠다.

원에 품종으로 심어지는 구절초 종류를 보면 잎이 가늘고 깊게 갈라지는 것들이 많다.

구절초(국화과)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개화: 8~10월 높이: 30~100cm 분포: 전역

산과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 뿌리: 옆으로 길게 뻗는 뿌리줄기가 있다.

▶ 줄기: 곧게 서고 가지가 갈라지며 털이 있거나 없다.

▶ 잎: 뿌리잎은 난형 또는 넓은 난형이고 잎자루가 길다. 줄기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결각 모양으로 얇게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길이는 1.5~5cm, 폭은 1.5~5.5cm이다.

▶ 꽃: 8~10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흰색 또는 분홍색의 두상화가 1개씩 달린다. 두상화는 대개 지름이 4~8cm이지만 석회암지대에서 자라는 것은 훨씬 작다. 주변부에 혀모양꽃이 달리고 중앙부에 노란색의 관모양꽃이 달린다. 총포조각은 3줄로 붙는다.

▶ 열매: 긴 타원형의 수과이다.



원에 품종 구절초는 잎이 가늘고 깊게 갈라진다(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



야생의 구절초는 잎이 넓적하다(강원도 정선군 덕산기 계곡)



산구절초(충북 단양군 소백산)



한라구절초(제주도 한라산)



포천구절초(강원도 정선군 운치리)



남구절초(전남 고흥군 볼레면 외나로)

구절초는 넓고 가장자리가 얇게 갈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원에 품종들은 원종에서 개발되는 과정에서 잎이 잘게 갈라지도록 변형되었거나, 애초에 잎이 깊게 갈라지는 원종(산구절초 같은 것)에서 개발된 것이어서 그럴 수 있다. 원에 품종은 대개 순백색 꽃이지만, 야생에서는 열은 분홍색 또는 진한 분홍색 꽃이 발견된다. 그건 개체의 특성 때문이거나 토양이나 습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따로 품종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능성을 알아본 건지 울릉도 서면 남서리의 구불구불한 수충교 주변에 많이 심어놓은 울릉국화를 볼 수 있다. 키큰산국이라는 야생화도 있다. 북방계 식물인 키큰산국은 경기도 수원시의 칠보산과 부산광역시 서구의 습지에서 매우 드물게 자란다. 회귀성과 함께 관상화로서의 가치가 뛰어나고 습기 많은 화단에 심기 좋은 야생화다. 그러므로 종자 확보와 정원화로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심기와 관리하기

구절초 종류를 구분하는 키워드는 식물체의 높이와 잎의 모양이다. 일단 구절초는 잎이 넓적하고 가장자리가 얇게 갈라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에 비해 키가 작고 잎이 좀 더 가늘게 갈라지는 것은 산구절초라고 하며 높은 산에서 자란다. 제주도의 한라산에는 잎이 두껍고 선 모양으로 잘게 갈라지며 키가 훨씬 더 작은 한라구절초가 자란다. 잎이 매우 길고 가느다란 것은 포천구절초라고 한다. 포천에서 처음 발견된 종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강가 바위틈에서 자란다. 코스모스처럼 가느다란 잎이 아름다워 정원화로 개발하기에 좋은 자원이다. 남부지방의 바닷가 근처 산지에서 자라는 남구절초는 줄기 아래쪽의 잎이 돌려서 달리고 두꺼우며 끝 부분만 얇게 갈라지는 점이 특징이다. 울릉도에는 잎이 두툽한 다육질이고 앞면에 광택이 있는 울릉국화가 자란다. 정원화로서의 가

번식은 씨뿌리기, 포기나누기, 꺾꽂이로 한다. 11월에 받은 씨를 건랭한 곳에 보관했다가 다음 해 봄에 뿌리면 다음 해에 꽃이 핀다. 포기나누기는 봄에 하며 올해 꽃이 핀 포기는 말라 죽으므로 지난 해에 왕성하게 자라난 포기를 나누어 심는다. 꺾꽂이는 6~9월에 꽃봉오리가 달린 끝 부분이나 가지를 잘라 그대로 꽂아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구절초는 햇빛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다. 습도가 많은 곳은 싫어하므로 물을 자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잎이 시들해지면 바로 물을 주는 것이 좋다. 밑거름으로 퇴비를 약간 주고 생육이 왕성한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고향비료나 복합비료를 1~2회 준다. 크고 왕성하게 자란 포기에는 거름을 주지 않아도 된다.



울릉국화(경북 울릉도 서면 수충교)



키큰산국(경기도 수원시 칠보산)



글 사진: 이동현
협이삼촌의 풀꽃나무 일기
<http://blog.naver.com/freebowl>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단풍의 진실과 단풍나무 무리의 상세 분류

노랑고 빨강계 물드는 단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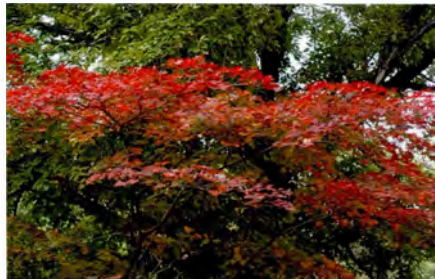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붉거나 노란 색으로 물이 드는 종류들을 흔히 단풍이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단풍나무'라는 식물종이 고유한 이름으로 따로 있는 것이다. 다른 나무의 잎보다 유난히 더 짙고 더 아름다운 색깔로 곱게 물드는 활엽수로, 여러 종류의 단풍나무목 식물들이 있는 것이다. 단풍나무와 당단풍나무는 가을에 붉게 물이 들지만, 고로쇠나무와 우산고로쇠는 흔히 노랗게 단풍이 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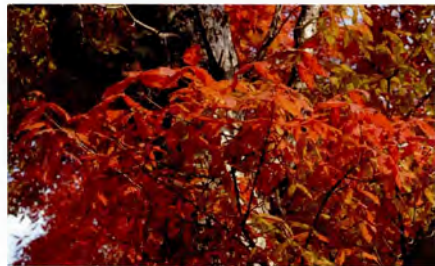
단풍나무 꽃



단풍나무 단풍



단풍



복자기나무

단풍나무 종류들의 공통 특징

단풍나무 종류들의 잎은 대개 손바닥을 넓게 펼친 모양으로 잎이 돌는데, 이런 모양을 장상(掌狀)이라고 한다. 단풍나무 종류들의 잎들은 대개 장상이긴 하지만, 신나무나 산겨릅나무의 경우엔 잎 모양만 가지고서는 전혀 공통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단풍나무 종류들의 가장 뚜렷한 공통 특징은 바로 열매의 모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열매가 2개씩 쌍으로 붙어서 V자 모양으로 달리는데, 넓게 날개가 붙어 있어서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면서 바람에 날려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이런 열매를 시과(翅果)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단풍나무목의 식물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다.

가을에 단풍이 드는 이유

단풍은 나뭇잎의 생육이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식물생육의 최저온도인 섭씨 5도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생겨난다. 계절이 가을로 바뀌면서 밤이 길어지고 태양빛은 약해진다. 또 기온도 떨어진다. 이때부터 나뭇잎의 밑동에는 얇은 막이 생겨 잎과 줄기를 연결하는 통로를 막아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인과 마그네슘 등 영양분과 수분이 잎으로 공급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광합성이 점점 둔화된다. 이에 따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녹색의 엽록소는 더 이상 생성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엽록소도 햇빛에 파괴돼 감소하면서 잎의 색깔이 변하게 된다.

잎의 색소 변화

색깔변화는 색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붉은색 단풍은 '안토시아닌'

이란 붉은 색소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다. 또한 빨간색과 분홍·파랑·보라색을 띠는 색소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은 광합성의 산물인 당이 더 이상 나무로 이동하지 못함에 따라 잎의 당 농도가 높아지고 낮시간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세포의 액체 부분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이 액체의 pH가 높고 낮음에 따라 산성에서는 붉은색을 띠고 중성과 알칼리성에서는 파란색을 나타낸다. 그러나, 붉은색 단풍과 달리 노란색 단풍은 기존에 있던 색소가 겹으로 드러나는 경우이다. 잎에는 엽록소 외에 보조색소인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광합성 색소가 있는데, 이 색소는 흡수된 빛에너지를 엽록소로 보내주는 기능을 한다. 카로티노이드계열의 색소는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을 나타내는 '카로틴'과 노란색을 띠는 '크산토펜'로 구별된다. 이들 색소는 엽록소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는 엽록소에 가려 자기 색깔을 내지 못하다가 엽록소가 소멸되면서 겹으로 드러난다. 한편 갈색 단풍은 '타닌'이란 갈색 색소가 겹으로 드러나면서 생기는 경우이다.



신나무(단풍)



성단풍나무



단풍나무 열매

단풍의 절정기

이 같은 단풍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거나 여름에서 갑자기 가을이 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때 더욱 아름답게 물든다. 기상청에서는 산 전체로 보아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고 하고 80%가량 물들었을 때 단풍 절정기라 구분 짓고 있다.

단풍의 진실

단풍이 드는 나무들은 모두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들인데, 이와는 달리 사철 내내 푸른 잎을 자랑하는 상록수도 있다. 상록수 중에서도 색깔이 변하는 종류가 있으나 대개의 상록수들은 낙엽수에 비해 잎이 두껍고 질겨 춥고 건조한 겨울을 무사히 지낼 수 있기에 낙엽을 만들지 않는다.

단풍나무의 꽃과 열매

단풍나무 종류들은 대부분 꽃이 황색이나 붉은색으로 작게 피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끌 정도로 화려하지는 못한 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꽃이 피지 않는다고들 흔히 말하지만, 가을에 뚜렷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꽃은 분명히 피는 것이다. 6월에 피는 꽃보다는 오히려 9월에 달리는 열매 모습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단풍나무의 상세 분류

단풍나무목에도 비슷한 여러 종류가 있다. 단풍나무와 당단풍나무를 비롯해 고로쇠나무, 복자기나무, 복장나무, 산겨릅나무, 부계꽃나무, 신나무 등 종류가 제법 많은 편이다. 단풍나무목의 고로쇠 수액이 어느 날 갑자기 알려지면서 고로쇠나무를 비롯해서 야생하는 당단풍, 심지어는 자작나무목의 대부분 식물들까지도 마구 구멍을 뚫어서 수액을 뽑아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고로쇠 수액", "자작나무 수액"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무참히 망치면서까지 수액을 마구다지러 채취하는 한심한 일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자연은 그냥 자연 상태로 놓아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니까 말이다.



런던의

잉글리쉬 가드닝 스쿨(The English gardening school)

인쉬볼드 디자인 스쿨(Inchbald School of Design)

손 관 화 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영국 가드닝 연수기간 중 가드닝 관련 기관 여러 곳을 방문하였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아보고자 여러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영국은 학생비자로 입국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대학 교육을 신청할 수 없는데 학생 비자와 상관없는 여러 기관에서 가드닝 관련 강의를 경험해보려 하였다. 그 중 런던에서 유명한 잉글리쉬 가드닝 스쿨과 인쉬볼드 디자인 스쿨에서의 경험을 소개한다. 요즘 한국의 2년제 대학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교육에서처럼 한국의 학원과 달리 영국의 학원에는 조건을 갖추면 대학 외 기관에서도 인증이 가능한 자격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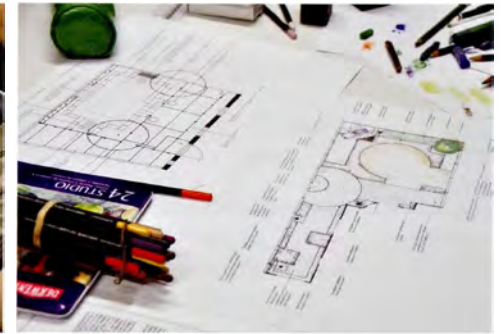


잉글리쉬 가드닝 스쿨(The English gardening school)
<http://www.englishgardeningsschool.com>

런던의 첼시 지역에 있는 잉글리쉬 가드닝 스쿨은 1983년 개원되었다. 학위 과정(Diploma course)과 단기 과정(Short course), 온라인 과정이 있는데 학위 과정은 크게 가드닝과 가든 디자인, 그리고 꽃그림그리기로 나뉘어져 있고, 온라인 과정은 정원관리와 가든디자인, 그리고 단기 과정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 때 그 때 교과목이 바뀐다. 예전에 첼시플라워쇼장에서 이 스쿨의 카탈로그를 받았

는데 위치가 첼시플라워쇼장 부근이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교육을 신청할 때 좁은 첼시 지역 다른 곳인 첼시 와프(Chelsea warf)로 이전하는 중이었다.

조경을 전공한 로즈마리 알렉산더(Rosemary Alexander)가 원장인데 왕립원예협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유명한 가든 디자이너 존 브룩스(John Brookes)와도 친구라고 했다. 'The essential garden design workbook' 책을 출판했는데 한국에 돌아온 얼마 후 기문당에서 '정원설계'로 번역 출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초화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식재계획(planting plan)을 수강하고 싶었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 단기코스 중 10주간 진행되는 자기집 정원만들기(Make your own garden)를 신청했다. 매주 4시간 10주 강의인데 1,350£(약 245만원)로 우리 대학(한 학기 15주) 등록금이 300만원인데 과목 하나 수강료가 무척이나 비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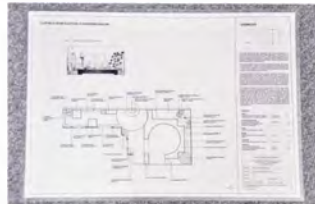
수강자들 중 건축가, 실내장식가 등이 고객의 정원을 디자인하기 위해 속성으로 배우고자 왔고, 변호사, 회계사를 비롯한 큰 정원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 사람들이 자기 정원을 제 손으로 디자인하고 싶어 왔거나, 첼시플라워쇼의 시공자도 있으며 가든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져볼까 싶어 맛보기 강의를 온 사람들 등이 있는데 다들 나이가 많고 부유해 보인다.



유럽에서 런던 사람들은 예의가 바른 것 같지만 까다롭고 오만하다는 평을 받는데 여기서 실감을 한 것 같다. 로즈마리 원장님과 부원장님은 무척 친절하였다.

10주 강의 중 휴가기간에 옥스퍼드 가든 디자인 대학(Oxford college of garden design)의 특강을 다녀왔는데, 잉글리쉬 가드닝 스쿨의 교육은 확실히 가벼운 단기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가드닝 스쿨이라 식재계획에서 무척이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웬만한 도면을 보고도 초화류 식재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초화류 종류에 따른 수량이나 면적 등에 강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접하게 되었다.

수강료에 점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점심 먹는 재미로 수강했다 할 정도로 맛있었지만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 단기코스라도 저렴하게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런던 교외의 공립대학에서 수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나 스타일, 수준이 학교마다 다르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까? 잉글리쉬 가드닝 스쿨은 원에 베이스라 가든 디자인을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강생 중 한 사람에게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자 명성이 높아 왔다고 했다. 런던에서는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단기코스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없다.



인취볼드 디자인 스쿨(Inchbald School of Design) <http://www.inchbald.co.uk/>

런던 빅토리아역 부근에 있는 인취볼드 디자인 스쿨(Inchbald School of Design)은 일반 주택을 스쿨로 만들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은 실내디자인, 가든디자인, CAD, 온라인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학위 과정, 자격증 과정, 단기 코스, 풀타임, 파트타임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개설되어 있다. 1960년에 인취볼드 실내디자인 스쿨(Inchbald School of Interior Design)로 시작해 1972년에 가든 디자인까지 영역을 넓혔다.



여러 교육기관의 수강료를 조사해보았는데 이 스쿨이 가장 비싼 것 같다. 가든 디자인 1년 학위 과정 수강료가 거의 22,062£(약 4,000만원)였다. 수강료가 비싼만큼 잘 가르친다고 한다. 이 스쿨은 잉글리쉬 가드닝 스쿨이 가드닝과 접목되어 있는 것에 비해 디자인 위주의 스쿨이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고 2층 강의실로 가보니 제도실이 있고 지하에는 부엌과 식당이 있다. 가든 디자인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벡터웍스(Vectorworks)를 하루 6시간에 가르치는 과정이 있어 신청했는데 118£(약 21만원)였다.



수강자를 보니 현역 가든 디자이너들이었다. 이들은 수강해보고 마음에 들면 다음 4일 강의를 신청한다고 했다. 영국에는 벡터웍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런던 외곽으로 나가면 공립대학이 있고 저렴한 단기코스들이 있는데 기차타고 나가는 교통비가 만만치 않아 런던 사람들에게겐 런던에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조선시대 정원 조성법을 기록한 문헌을 펼쳐보자!



글/사진 김 홍 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공관길라잡이 중모

- 홍만선 '산림경제(山林經濟)'

지난 호에서 소개했던 옛 조선시대 정원과 화훼 가꾸기에 관한 기록인 '양화소록'과 '화암수록'이야기는 혹시 생소하거나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았는지, 원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독자들이 읽고 느낀 점이나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삼사백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 이 시간을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옛 기록에 대해서 온전히 다 꿰뚫고 있지는 못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도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웬만한 소설택보다 훨씬 더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 통이나 옛 서적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당시의 삶의 체취가 느껴질 정도로 공감되는 부분이 느껴져서입니다.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할 때마다 옛 문헌을 뒤져보고 익히고 있는 과정에서 정원 가꾸기에 대한 정보나 활용하기에 이로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모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번 11월에는 10월에 이어서 조선 중기 무렵의 기록인 '산림경제' 내용을 다뤄봅니다. 내용소개에 앞서 이 책의 저자로 알려진 홍만선은 조선 중기인 1643년(인조 21년)에 당대 명문으로 알려진 풍산홍씨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당쟁이 심했던 시기에 삶을 꾸렸던 사람이었으나 어느 편에도 연루되거나 가담하지 않았습다. 벼슬도 마다하고 은둔하려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고 있던 23세가 되던 해에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홍주국(洪柱國)이 제 2차 예송논쟁에 연루되어 파직당하고 몇 년 후 세상을 뜨게 되면서 더욱더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는 동안 남겨 놓은 글들은 세월이 흘러 그가 세상을 타계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홍만종이 정리하여 간행했습니다. 홍만선의 생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그가 죽고 나서 집안사람이 기록에 대한 가치를 알고 널리 유포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홍만선 '산림경제' 본문 첫 글귀를 소개하면서 책의 내용과 정원조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의향에 따라 꽃과 대를 심고 적성에 맞추어 새와 물고기를 기르는 것,
이것이 곧 산림 경제(山林經濟)이다.”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음미하고 뜻을 취해서 책 이름으로 삼는다.

1. 홍만선 '산림경제'의 내용

산림경제(山林經濟)는 4권 4책에 총 16지(志)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개의 지(志)는 앞에는 해당 지(주제)를 짓는 목적이나 편찬 방법을 밝힌 글(서문, 序文)을 소개하고 본문을 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 있는 서문(序文)은 책의 저자인 홍만선이 세상을 뜬 지 3년이 되는 해인 1718년에 홍만종이 쓴 부분입니다.

서문에는 저술 동기와 목차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첫 내용이 주력과 방, 우물, 문과 길, 화장실, 울타리 등을 세울 경우 터의 선정 및 조성하는데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 등에 대한 논하면서 집의 설계도인 용도서(龍圖墅)와 귀문원(龜文園)의 도면과 해설을 담은 '(1)복거(卜居)' 부분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병을 물리치고 수명을 연장하는 법 등을 담은 '(2)섭생(攝生)', 농사의 풍·흉년을 점치는 방법과 각종 작물 재배법을 다룬 부분인 '(3)치농(治農)', 수박, 참외, 오이, 호박, 생강, 파, 배추, 부추, 미나리 등의 채소류와 양귀비, 팬드라미 등의 화초와 담배 등 약초류에 이르기까지 각종 원예작물 재배법을 담은 '(4)치포(治圃)', 반, 대추, 호도, 은행, 배, 복숭아, 모과, 사과와 같은 유실수와 뽕나무, 단나무, 측백나무, 버드나무 등의 임목(林木) 재배법을 담은 '(5)종수(種樹)', 노송, 대나무, 매화, 난초, 치자, 석류, 모란, 작약, 파초 등과 같은 화목 및 화초, 정원수를 재배하는 법을 다루는 '(6)양화(養花)', 양잠의 좋은 날과 좋지 못한 날 등 양잠에 관한 잡귀를 담은 '(7)양잠(養蠶)', 양잠, 양어 등 가축을 기르는 방법이 있는 '(8)목양(牧養)', 과실의 보관법 및 채소와 고기류의 요리법, 장과 술을 담그는 법이 작성된 '(9)치선(治膳)', 130여 가지의 돌발적인 사고에 대한 경우와 구급법을 다룬 '(10)구급(救急)', 수해나 한재를 만나 흉년이 들었을 때 극복하는 방법으로 '(11)구황(救荒)', 전염병을 물리치는 방법 '(12)벽온(辟瘟)', 뱀, 쥐, 모기, 파리, 벼룩 등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물리치는 기록이 담긴 '(13)벽충(辟蟲)', 일상에 필요한 각종 약재 176종에 대한 소개와 복약법 등의 '(14)치약(治藥)',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일에 있어서 좋은 날과 흉한 날을 가려내는 방법인 '(15)선택(選擇)', 일상의 물건들을 손질하거나 만드는 방법 등을 실은 '(16)잡방(雜方)'에 이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집과 정원, 화훼를 경영하는 법과 관련된 책은 집집마다 간직해야 마땅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산림경제의 정원조성 팁(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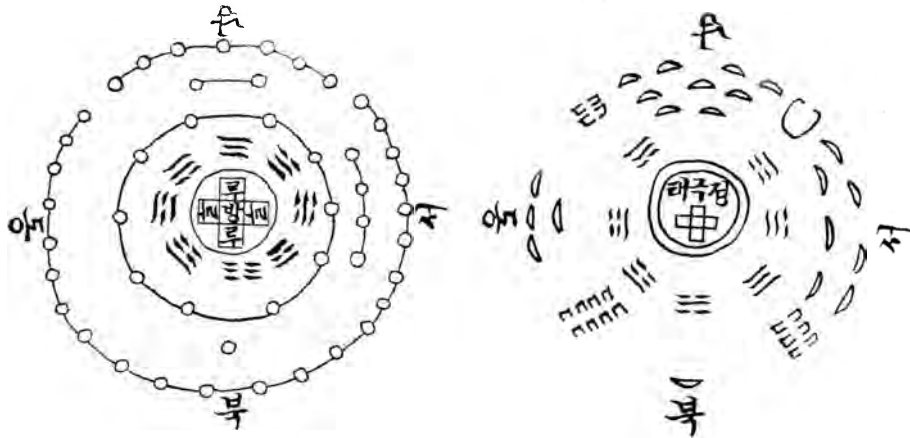
1) 담장과 울타리

무릇 집을 지을 때에 먼저 담장부터 쌓거나 바깥문(外門)부터 만드는 것을 매우 꺼리는데, 그렇게 하면 완성이 어렵다. 울타리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먼저 사방의 경계선에 2척(尺) 너비와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멧대추가 익을 때를 기다려 열매를 따서 구덩이에 심어놓

고 짝이 돌은 다음에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면 1년 뒤에는 3척의 높이가 된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가로 자란 가지는 잘라버리고 가지는 남겨둔다. 겨울이 되어 이 줄기를 엮어 울타리를 만들되 편의에 따라 엮는다. 그 다음해에 다시 높이 자라면 충분히 도적을 막을 수 있다. 탕자나무를 많이 심어서 울타리를 만들면 또한 도둑을 막을 수 있다.

2) 방앗간(安碓)

- ▶ 무릇 주택이 있어서, 왼편에 흐르는 물과 오른편에 긴 길과 앞에 못, 뒤에 언덕이 없으며 동쪽에는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를 심고, 남쪽에는 매화과 대추나무를, 서쪽에는 치자와 느릅나무를, 북쪽에는 뽕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으면, 또한 청룡·백호·주작·현무를 대신할 수 있다.
- ▶ 주택 동쪽에 살구나무가 있고 주택 서쪽에 버드나무가 있으면 흉하며, 주택 서쪽에 복숭아 나무가 있고 주택 북쪽에 오얏나무가 있으면 도리에 어긋나고 바르지 아니하다. 주택 서쪽언덕에 대나무가 푸르면 재물이 풀어난다. 무릇 나무가 집으로 향하면 길하고 집을 등지고있으면 흉하다.
- ▶ 큰 나무가 마루 앞에 있으면 질병이 끊이지 않는다.
- ▶ 큰 나무는 마루에 가까우면 좋지 않다.
- ▶ 뜰 가운데 나무를 심는 것은 좋지 않다.
- ▶ 집 뜰 가운데 나무를 심으면 한 달에 천금의 재물이 흩어진다.
- ▶ 뜰 가운데 있는 나무를 한곤(閑園)이라 하는데, 뜰 가운데 오래 심어 놓으면 재앙이 생긴다.



용도서 (龍圖墅)

귀문원 (龜文園)

그림 1 용도서와 귀문원 (출처: 산림경제 제1권 복거편)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정원 구조에 대해서 이상적인 두 다이어그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용도서(龍圖墅)'와 '귀문원(龜文園)'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은 이상적인 정원 구성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특집 기사로 한번 다뤄보 면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각각의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하는 수종을 소개하는 정도로 하였습니다.

용도서(龍圖墅)에서는 대나무, 소나무, 해송, 측백, 자단, 진송, 적목, 황양목, 백문동 등 10종의 55 상목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귀문원(龜文園)에서는 수종 선정이나 식재수량에 제약이 없습니다. 매화, 산수유, 두견, 해당화, 장미, 철쭉, 백일홍, 무궁화, 뽕나무, 복숭아 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앵두나무, 탕자나무, 동백나무, 해바라기, 작약, 석창포, 파초, 포도, 오동, 단풍나무, 버드나무 등의 수종을 선택 하여 심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치	정원 식물
동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홍벽도, 자두나무, 회화나무, 국화, 뽕나무, 매화나무, 소나무
남동	울나무, 버드나무, 매화나무, 대추나무, 오동나무, 뽕나무
남	복숭아나무, 매화나무, 대추나무, 소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싸리나무, 굴피, 대나무, 느릅나무, 진달래, 철쭉, 아카시아, 참나무, 향나무, 가문비나무
서	산뽕나무, 느릅나무, 대추나무, 치자나무, 무화과, 석류, 은행나무, 백일홍, 오동나무
북	느릅나무, 뽕나무, 개암나무, 진달래, 살구나무, 능금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해송, 팽나무, 가시나무, 참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회화나무
북동	대나무, 매화나무, 관목류
북서	소나무, 측백나무, 갈나무, 밤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대나무, 오동나무

[표 1] 방위에 따라 식재하면 좋은 식물

위치	정원 식물
동	살구나무
남동	살구나무
남	자두나무
남서	키가 큰 나무
서	버드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북	자두나무, 치자나무, 석류나무, 사철나무, 왜철쭉, 영산홍, 월계화, 포플러나무, 미루나무, 가문비나무, 사철나무, 대금송
북동	키가 큰 나무
북서	키가 큰 나무

[표 2] 방위에 따라 식재를 피해야 하는 식물

'종수(種樹) 편에서는

옛말에 '10년 계획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있다. 지역에 따라 그곳에 알맞은 나무를 많이 심으면 봄에는 꽃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그늘을 즐길 수 있으며, 가을에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 것이 재목이 되고 기기(器械)가 되니 모두 자산(資産)을 늘리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옛사람들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중히 여겼던 것이다. 이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방법을 적어 5번째 편으로 삼는다.

또 '양화(養花) 편에서는

황량한 들판이나 적막한 물가에서 벗어 없어 정 불일 곳이 없다면 꽃을 가꾸고 대나무를 재배하는 것도 세월을 보내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재배하는 기술과 갈무리하는 방법을 몰라 습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건조하게 하고 찬 곳에 두어야 할 것을 따스한 곳으로 옮기는 등 타고난 천성을 거스른다면 그것을 종 내 오그라들어 말라 죽게 될 뿐이다. 그리하여 이에 꽃 가꾸는 방법을 적어 6번째 편으로 삼는다.

라는 이편에서는 분재법, 화분관리법, 갈무리하는 법 등과 함께, 27여종의 화초와 괴석에 대한 활용 및 선택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제는 나무와 화초에서부터 당시 삶의 모든 것을 담은 백과이다.

10월에 소개했던 강희안 '양화소록', 유박 '화암수목'은 화초나 나무에 대해서 집중한 옛서적이었고, 다음호에서 소개할 서유구 '임원경제지'라는 서적은 이번호에서 소개한 홍만선 '산림경제'와 비슷한 유형과 내용을 담은 서적입니다. 하지만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그 전에 남겨진 서적들과 달리 주택과 정원, 화목, 화초에 대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읽어보는 즉시 가드닝에 접목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지의 선정과 풍수에서 길지와 건줄 수 있는 방위별 적합 수종 및 피해야 할 수종 소개부터 거름 만드는 법과 활용하는 법, 좋은 괴석을 얻는 법 등 조선 중기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백과사전과 같은 서적이라 여겨집니다.

필자가 계속 이러한 옛 서적에서 얻는 시사점은 그 글에서 저자가 화초나 수목 등 정원을 조성하는데 사랑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상과 과정을 있는 그대로를 담고 있는 것을 뛰어 넘어서 왜 내가 이러한 내용을 써야 하는지부터 언급하고 이어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으니 웬지 오래 전의 서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수리 현장이나 전통조경 공간에서 국한시켜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우리의 정원속에 적용해 본다면, 그 또한 전통정원 조성의 재해석으로 재미난 정원 조성과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경제는 구하기도 어렵고 한자로 된 단어가 많이 있어 읽기도 어렵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남겨 놓은 정원 기록들을 펼쳐보면서 몸소 실천해보는 것 또한 정원을 즐기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도시 속 기와뜰 정원

서은숙 정원사

글 사진 우정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서은숙님의 정원은 아파트라는 다소 제한적 공간에 조성되어 있는데, 1층 세대에 주어진 서비스 공간에 전통적인 소품인 향아리, 석등, 한옥문살, 오래된 농기구와 함께 기와 담장이 어우러져 한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30여 평(99m²) 정원에는 소나무, 반송, 감나무, 향나무, 남천, 주목, 공작단풍, 단풍나무, 배롱나무, 회양목 등의 목본류와 구절초, 국화, 으아리, 바위솔, 물옥잠, 물수세미, 아주가 페튜니아, 제라늄, 카멜레온, 애란 등이 중앙의 잔디 정원 둘레에 자리 잡고 있다.



결혼을 하면서 한 두 개씩 식물을 키우고 정원에 대한 꿈도 같이 키워 갔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도심에서도 정원을 즐길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된 계획은 2013년부터 조경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본격적인 도면 작업과 준비를 하면서 지금의 정원도 시작되었다고 한다.

먼저 정원의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어울릴 것들을 1여년에 걸쳐 수집했는데, 전통적인 정원을 주제로 했기에 골동품이 있는 곳이라면 인사동, 포천, 양평, 충북 양성까지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발품을 팔아서 얻은 것들이 정원의 일부로 정원을 빛내고 있다.

이 정원의 특징은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 숲을 앞으로 하고 있어서 시선의 연장선이 무한적이고, 실제로도 문을 내어서 왕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한 것이 이색적이다.

기와로 쌓아서 흙으로 메우고 식물을 식재해 단단히 고정시킨 낮은 담장과 에어컨 실외기를 한식격자문으로 막고 메추, 호박 등의 소품을 매달아 놓고, 웅기종기 항아리가 있는 정독대,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키와 왕골 주머니, 곳곳에 놓여진 식물이 식재된 고무신은 사골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든다. 아파트 내부의 공간도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정원과 통일된 감을 주어서 집안에서 바라보는 정원의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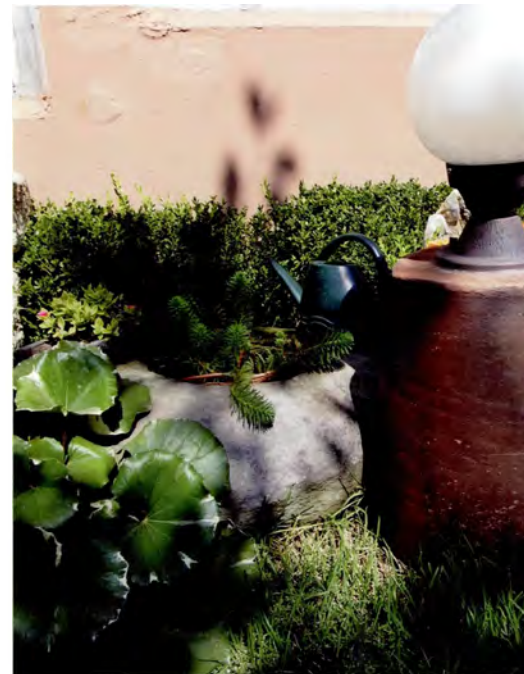


정원의 관리는 하루에 1~2시간 잡초제거와 함께 식물과 소통하고, 병해충 방제는 아파트라는 공동 주택의 특성상 아파트 정원수의 방제시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점이라 할 수 있고, 비료는 주거공간이라는 점을 배려해 액체 비료를 주로 사용하여 염면시비 하고, 잔디는 2~3주마다 깎아 준다고 한다.

정원을 조성은 가족간의 단합과 공통된 대화의 주제가 되고, 남편의 휴식 공간과 딸들의 아지트가 되고, 주인장에게는 힐링의 공간이 되었다. 아침이면 참새, 비둘기, 작박구리, 박새, 삿꾸기 등이 정원에 놀러 오고, 오후가 되면 산책을 즐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정원에 놀러와 주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화되게 하는 사랑방이 되었고, 휴일이면 캠핑공간으로도 즐기고 있다 한다.



“정원이 주는 자연 그늘과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빛나는 더듬석과 기와의 눈부심은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소통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만든 정원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라 할 때 행복함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시작이 많은 분들에게 동기가 되어 주위에 모든 공간이 정원이 되고, 자연이 되는 순간을 꿈 꿔 봅니다.”



정원문화박람회 특집



경기정원문화 대상 시상식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지난 10월 8일~ 10월 11일 까지, 나흘간 안성시 안성 맞춤랜드에서 열렸다.

경기도, 안성시,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공동주최·주관하는 이 박람회는 모듬, 실험, 참여, 시민 실내정원, 정원문화프로그램, 정원작가와와의 만남 등의 주요 내용이다.

이 외에 핸드벨·클래식 공연, 다도, 석고마임퍼포먼스, 명사 특강 등 각종 공연과 열기구체험, 일루미네이션 쇼, 보물찾기, 전통놀이체험, 나도가드너 등 체험행사가 열렸으며, 일년에 한 번씩 열리는 '2014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는 3만1천㎡에 새로운 도시공원 모델과 생활 속 정원 문화의 새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시민주도로 열리는 이번 정원박람회 기간 중 조성된 정원이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주최한 경기농림진흥재단은 2015년 경기정원문화대상 시상도 하여 정원문화의 열기를 더하였다. 각 경기지역의 조경대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던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만이 3개 공공기관이 융합된 박람회를 개최한 것도 높이 평가된다. 경기도 지역의 문화컨텐츠를 보존 관리하는 차원의 보다 차원높은 문화 콘텐츠로 정원문화의 보급은 미래의 역사를 내다보는 문화산업이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정원박람회의 개최를 위한 조경대학 정원, 원예 교육 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다른 지방자치제의 부러움도 사고 있다. 2014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경기도와 안성시가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주관했으며, 여러 단체의 방문과 특히 각 지역의 조경대학생들의 체험 현장으로 정원에 대한 토의와 디자인의 견문도 넓히는 시간이 되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조경가든대학 과정에서는 식물의 환경과 생리, 원예식물의 특성, 식물의 번식 등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정원계획과 설계, 식물의 식재, 정원조성 및 잔디관리, 관수, 비배 등 유지관리까지 실내의 정원조성에 필요한 내용의 이론과 실습교육은 물론, 다산신도시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내용과 수목원 및 경기정원문화박람회장 답사 등이 포함된다. 재단의 사이트를 통하여 누구든 조경대학 입학이 가능하며 일부 교육비의 지원도 해주는 정원사의 자리에 도다르는 유용한 기관이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는 "이번 조경가든대학 교육과정에 참여한 입주예정자 및 지역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경기정원문화대상응모 <http://greencafe.gg.go.kr>

조경가든대학이란?

경기도 내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평소 꽃과 나무, 정원 등 녹색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도민들에게 식물과 대한 기본 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조경가든대학을 통해 삶의 질도 높이고, 가든시티(garden city) 만들기과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세요!

2015년 조경가든대학은 연 2회(3월, 7월) 모집합니다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5. 3월 ~ 12월
- 교육시간 : 56시간(주 1회 × 4시간 × 14주)
- 교육장소 : 선정중
- 교육인원 : 30명 / 1강당 (수강생이 80%미만일 경우 교육과정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 수강료
 - 경기도민 : 이론-실습과정 250,000원(총 교육비 650,000원 중 400,000원은 경기도에서 지원)
 - 타지역 거주자 : 이론-실습과정 650,000원 (총 교육비 자부담 100%)

- 교육 후 특전 : 각 대학 총장, 학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교육 후 원하시는 분 및 교육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정원사 봉사-인턴과정' 수강 후 '시민정원사' 인증 획득
- ※ 시민정원사 봉사 - 인턴과정은 경기도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제21조2항에 의거함)

공동커리큘럼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강	개강식		정원의 이해	
2강	원예식물의 종류와 특성			
3강	정원의 계획과 설계			
4강	수목의 종류와 특성			
5강	식물의 번식 / 잔디관리			
6강	실내정원조성			
7강	식재 및 관수			
8강	수목의 전지 전정			
9강	채소정원 조성			
10강	정원답사			
11강	병해충관리			
12강	실외정원조성			
13강	식물의 환경과 생리			
14강	식물의 비배 및 월동관리		수료식	

기관: 경기농림진흥재단(부서:녹화사업부)담당:김학규문의:031-250-2731



우리꽃 조경대학 6기생의 경기정원문화 정원사상식에서: "햇살정원"으로 "금상" 수상자 이복임정원사(가운데)

경기정원문화 대상이란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 생활 속의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정원문화대상

우리가족의 쉼터 “뜰” 권혁 문

경기정원박람회의 박람회 관계자는 "정원 작품을 전시하는 데만 초점을 둔 일회성 정원 축제로 기획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원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이 곳에서 정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가족과 친구들과 방문하는 산책 장소로 이어져가는 문화도 기대한다.



‘공원에서 정원문화를 만나다’라는 부제로 도시공원의 공공정원으로서의 역할과 정원에서 행사가 어우러져 진행되는 방법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하며 ‘2015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또 다른 볼거리는 정원 각각의 성격에 맞는 행사를 기획해 개최했다는 점이다. 아직 기존의 정원과 거리감이 있는 것도 있으나 점차적으로 디자인의 수준이 궤도에 오르면 보다 조화로운 정원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진화하리라 믿는다. 정원은 “보존과 관리”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을 공공기관이나 사용하는 국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음악을 감상하고 싶은 관람객은 아지트정원을 방문하고, 차를 즐기고 싶은 관람객은 제3의 자연정원을 찾을 수 있고, 또한 해가 진 후 야간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빛이 되는 은하수 정원’도 마련돼 정원과 빛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루미네이션 쇼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을 단순히 바라보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 공공의 정원에 ‘문화’까지 넣어 가품의 문화로 확대시킨 것이 경기정원박람회를 주관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목표이다.



Sissinghurst Castle Garden 내 5층의 수층을 이용한 fence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 쾌적한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유형의 정원들이 시민정원, 모델정원, 실험정원, 참여정원, 실내정원 등의 컨셉으로 83개의 선보였다. 특히 시민정원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새로운 공공 정원문화의 가능성이 피어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조경전문가들의 모델정원, 조경원에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실험정원, 조경가대 대학 재학생 및 시민정원사들이 함께한 참여정원 등 국내외 정원트렌드를 한눈에 접할 수 있었다.

가든인에서는 경기 정원박람회의 정원 디자인을 매월 몇 가지씩 독자에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약 20cm 깊이의 물에 비추이는 그라스의 투영된 그림자의 모습도 정원에서 보기 드문 디자인이었다. 물의 수로는 위에서부터 연결되어 5개의 수로를 이어가는 볼소리도 청아하게 이어지거나,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과 쉼을 주는 공간으로 창조하였다.



작가 권혁문은 7가지 테마를 모델화 하여 “뜰”이라는 정원 안에 디자인의 융합을 하는 시도로 접근하였다. 특히 경사진 면을 석축으로 쌓아 평지를 만들어 정원 조경을 구상하던 틀을 탈피하여 우리나라 지형의 경사진 면을 최대한 응용 디자인 컨셉으로 아래와 같은 7개의 타이틀이 융합된 모델 정원이자이다.

1. 잔디정원
2. Patio 정원
3. Water Garden
4. 수생식물 정원
5. 거울형 정원(지름 4.5 m의 동판 원형을 제작, 깊이 15cm)
6. Cottage 정원
7. White 정원



주변 식재의 다양함과 질감의 조화도 잘 이루어져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정원에 모든 요소를 갖춘 공간을 창출하였다. 식재도 관리가 쉽고 다년생 초화류를 심어 초보 정원사도 어렵지 않게 돌보는 정원의 디자인이다.



여러 각도에서 같은 정원을 돌아 보아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정원의 창의성은 이런 맛이 다른 디자인과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절마다 시간이 바뀌면서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것이다.



작가는 White Garden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영국의 Sissinghurst Castle Garden 정원을 방문하며, 많은 곳이 인간의 창의적 예술성이 간마다 식물의 성장과 색깔, 질감에서 받아들이지만, 담을 이어가는 정원 팬스의 여러종의 관목이 함께 어울림도 무척 인상적이고 정원 한편에 다양한 관목을 이용 하며 7개의 테마 정원안에도 디자인의 효과를 살피 시도한 모델화한 정원이라 설명하였다. 영국 정원에서 담(fence)의 나무 종류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정원에 심취한 전문가급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모델 정원은 아파트 문화에 익숙하고 정원문화가 아직 낯선 현대인들에게 관리가 어렵지 않으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즐기며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식물이 아직 낯설고 정원을 즐기고 싶어 하는 초보자들에게 디자인적으로 공간을 분리 구성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원 모델로 제시한 모델 정원 디자인을 작가는 연출하였다.



Patio garden : 현대인에게 쉴을 주기 위한 공간으로 모델 정원은 아파트 문화에 익숙하고 정원문화가 아직 낯선 현대인들에게 관리가 어렵지 않으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즐기며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식물이 아직 낯설고 정원을 즐기고 싶어 하는 초보자들에게 디자인적으로 공간을 분리 구성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원 모델로 제시한 모델 정원을 작가는 연출하였다.

▶ 식재리스트

초화 - 추명국, 향등골풀, 에기네시아, 제주산수국, 운남소국, 큰평의비름, 평의비름, 구절초, 사계국화, 애기범부채, 애기남천, 가는잎향유, 휴케라(매직컬러, 카산드라, 컬러드림), 황금실유카, 파니쿨, 익새, 수크령(그라스)
관목 - 라일락, 미스김리일락, 목수국, 꼬리조팝, 삼색조팝, 황금조팝, 화살나무, 달팽나무, 종작살나무
교목 - 노각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 스카이로켓나무, 파라칸사스

▶ 정원문화박람회 특집



서울에서 첫 번째 '정원박람회' 2015

서울시는 지난 10월 3일 ~ 10월 12일 열흘간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서 '정원박람회'를 열었다. 축구장 7배 면적의 평화의 공원에 이 기간 중 80개의 정원이 조성되었으며 서울에서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초청작가의 작품급 정원 ▲시민 손으로 만든 독창적 정원 ▲유명인에 대한 팬심이 담겨 있는 스타 정원 등 3가지 메인 볼거리에 주목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람회에는 두 명의 작가가 초청됐는데, 그중 가든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는 '모퉁이에 비추인 태양(부제: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을 선보인다. 이 정원은 '모퉁이에 비추인 태양'을 테마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최연소인 12살 소녀가 고향집 뒷마루에서 바라본 햇살 좋은 프락을 그려내 그들의 따뜻한 희망과 행복한 시절들을 담았다.

20여 미터의 둘둘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장품과 나비그림 등 손수 그린 그림을 걸어놓고 곳곳에는 나비가 좋아하는 접시꽃, 물망초, 철쭉, 쑥바랭이 등 한국 자생종 꽃을 심어놓았다. 바닥에는 그들의 말과 사연이 적힌 동판이 깔려 있다. 길원옥 할머니의 족적에는 그의 발바닥 주름까지 표현되었다.

또 다른 초청작가 황혜정씨는 차를 마시며 즐긴다는 뜻의 '다연' 정원을 조성했다. 한국 전통의 찻살무늬와 단풍 같은 동양적 소재와 서양의 꽃을 같이 배치해 동서양의 조화를 꾀했다. 실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박람회에는 ▲마당에서 발견한 계란 ▲이야기 있는 엄마의 프락 ▲내 아이의 그림 그린 정원 등 '서울정원 우수디자인 공모'에서 당선된 신에 가든 디자이너들이 마련한 18개의



독창적인 정원들도 선보이며 전시회 기간이 끝났지만 평화공원내 정원은 계속 유지되며 앞으로도 관리와 유지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가든인 잡지는 계속 주제별 정원의 소재와 식재의 이해를 위해 연재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EXO(찬열, 카이), 손나은, 박시환, 서인국, 성시경, 씨엔블루(정용화), 예프엑스, 보이프랜드 민우 등 유명 연예인들의 팬클럽이 생일이나 데뷔일 등을 기념해 '스타정원'을 조성했다.

한편, 박람회가 열리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평화의 공원에서는 '에견하우스 옥상정원 콘테스트', '게릴라가드닝 플래시몹' 등 재밌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공연이 계속 펼쳐진다.

홍광표 서울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동국대 조경과 교수)은 "이번에 조성된 공원들은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유지해서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서울의 명물로 만들고, 해마다 서울의 다른 공원으로 옮겨 박람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정원 박람회 정원디자인 작품들

우연히 본 서울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급박하게 돌아가서 여유를 갖고 하늘을 볼 수 없는 우리들, 하늘을 느낄 수 있는 정원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말하는 취병, 꿈꾸는 담장

서울이 가진 전통조경 요소 중 취병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각요소이자 기능요소이다. 서울에서 식재공간이자 자연물로서의 취병의 현대적 재발견을 시도한다.



이야기 있는 엄마의 프락

어머니께서 프락을 가꾸시던 그 정성을 추억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마음의 정원 이야기'를 담는다.



신명나는 서울

사각모듈에 지배적인 서울을 정간보를 통해 모듈에 리듬을 심고, 도심 중심을 흐르는 한강은 서울과 함께 신명나고, 정원을 이용하는 우리는 자연과 함께 신명난다.



힐링정원(Hilling)

아름다움을 알기도 전에 사진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우리의 삶터, 서울에 위치한 마지막일 수도 있는 달동네 백새마을의 아름다움, 편안함을 우리집 앞마당에서 느껴보자.



안녕 서울, 안녕 미로 (Hi Seoul, Hi MAZE)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미로의 느낌을 많이 잃은 서울, 그 속에서 식물들로 형성된 미로를 지나가며 도시 안에서 새로운 자연과 신선한 정원을 느끼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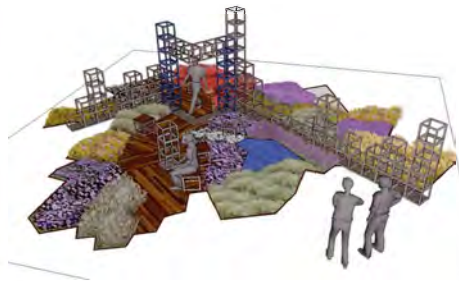
서울 정원 박람회 정원디자인 작품들

'88 손에 손잡고

주위를 둘러싼 나와 다른이의 모습.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자. 올림픽의 모토인 평화, 조화, 전진의 의미를 정원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소우주 서울정원 Microcosm Seoul Garden**

서울지역 전체가 정원도시로! 강남, 강북 지역이 서로 상생하며, 한 강을 통해서 소통하여 화석 도시에서 녹색도시로 진화하는 모습으로 소우주화 하는 것을 꿈꾼다.

**지하철에서 한강을 보다**

지하철에서 보는 한강은 우리에게 기운을 내준다. 정원을 통해서 바쁜 삶은 사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꿈을 실은 움직임을 아름답게 담는다.

**움직이는 정원에서 놀자 '꿈틀 정원'**

지난 성장 시대에 잊혀지며 사라지게 된 움직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연이라는 놀이터를 생각하며 미래세대에게 서울만이 가진 정원의 즐거움을 물려주고자 한다.

**대대손손**

장인들의 예술상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정원으로 표현하여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계승하고 세대간 연결시킨다.

**내 아이의 그림 그린 정원**

아이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자기만의 휴식공간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복한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서울의 미래모습을 그린다.



서울 정원 박람회 정원디자인 작품들

꽃은 핀다

꽃과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 전망대를 통해 우리 주위에 산재하는, 평소 신경쓰지 않았던 소소한 풍경이 여유로움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았으면 한다.

**마당에서 발견한 계란**

알뜰한 생활의 한장자치 동시에 휴식과 사색의 공간인 마당 한구석에서 발견 되는 계란을 통해서 사라져버린 우리의 옛모습을 기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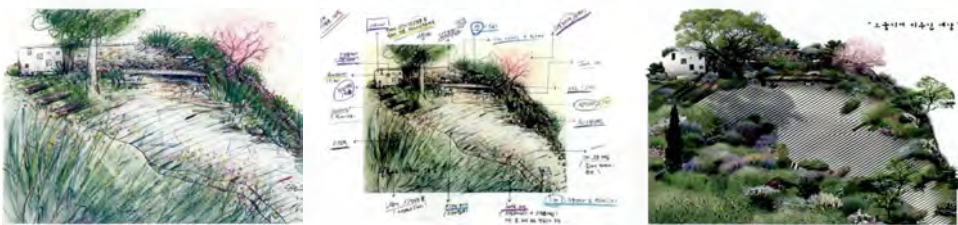
**서울정원 우수 디자인 공모당선작품**

우리꽃 박람회 디자인의 동상수상



서울정원 박람회의 정원디자인 소개

작품명: “모퉁이에 비추인 태양”



이 정원은 위안부 정원이 아닌 “12살 그때의 애틋 소녀”가 바라본 햇살 좋은 뜨락에서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이 정원의 중심 구조물인 20 여미터 길이의 아로진 담장은 소녀들의 소장품과 손수 그린 그림으로 만들어진 담장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정원가운데 소재원의 담장 “애양단(愛陽壇)”을 편집하였는데 애양단이란 “태양을 사랑하는 단”이란 뜻입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햇빛을 받을 수 있고, 항상 옹고 정의로운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쁜 소녀들의 상처와 아픔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다음 세대 다음세대가 연이어 헌정하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조화계획은 특별히 나비가 좋아하는 꽃과 우리나라 자생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살 그때의 소녀가 그린 나비처럼 세상에 모든 나비가 날아 와주길 바랍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소녀가 그린 나비”

-작품설명 중-



Profile
황지해 (JI-HAE HWANG, 黄知海)
(정원작가 & 환경미술가)

■ 약력

1999년 환경미술그룹 통 결성, 250여 점 이상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2011년 영국 첼시물리연구소 아티즌 기든 부문 최고상 및 금메달 동시수상 - 해무소
2012년 영국 첼시물리연구소 회장상(전체 최고상) 초대 수상 기록 및 쇼기든 부문 금메달 수상 - 고요한 시간, DMZ 금지된 정원
2012년 네덜란드 벨로 플로라이드 2012 한국정원 조성 - 벨: 어머니의 손바느질
2012년 일본 가드닝월드컵 한국대표 (세계 10대 작가 초대전 in Nagasaki, Japan)
2012년 '올해의 조경인' 수상
2013년 프랑스 룩스 한국정원 조성: 플로라이드 전시작 '벨: 어머니의 손바느질' 프랑스에 영구보존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것지렁이 다니는 길', '벨 공원장' 조성
2013년 '제4회 KBEE 런던' 초청 작가 '0.001,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2014년 '2014 미래를 이끌여걸 여성지도자상' 수상
2014년 3월 5-9일 런던 미니어처 기든쇼 (트라벨가랑창 스트랜드 갤러리)
2014년 9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유공 - 국무총리표창
2014년 10월-11월 평화미술제
2015년 김대중컨벤션센터 '2015광주불꽃문화회 정원조성 설계 및 실행'

Design Concept

할머니들이 손수 그린 그림이 걸어나와서 정원이 될것입니다.



김순악

1944년(17세) 북경 장가고에서 위안소 생활
"내 나고는 선물 받고 하는게 제일 원이라 안 카터나? 꽃 한 송이를 안 받아 봤다... 내가 본대 꽃을 좀 좋아하는데도 안 받아 봤어. ... 꽃 받은 사람은 언제나 좋겠노."

길원옥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넘어갔어요, 세월이

강순자(가명)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1938(17세) 가을 경, 일본군인에 의해 만주로 연행됨
"나가 외로와 그라는가 꽃도 그리 좋아하거든 ... 꽃도 좋아하고, "내가 우짜다 이리 늙었는가 싶었다."

송신도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박숙이할머니, 16세 만주위안소 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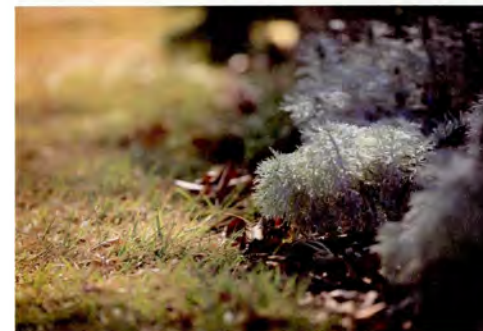
"눈물 젖은 두만강" 예쁘다. 예쁘다
'상처많은 꽃이 더 향기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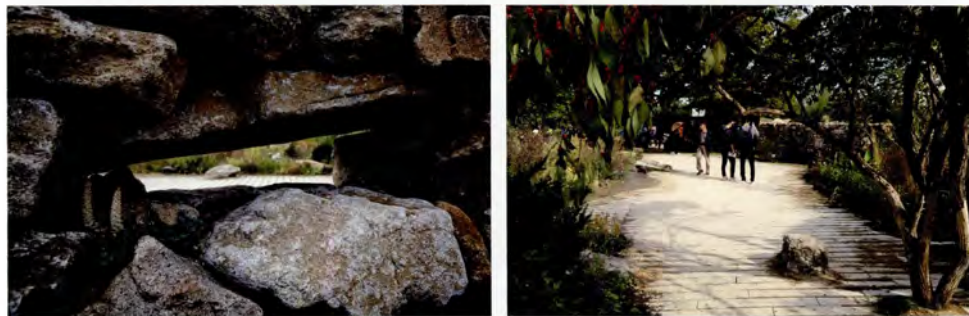
심달연 할머니

"꽃을 만질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기분이 편안해지고 세상 사람들 모두 꽃 보면서 꽃 좋아하는 것처럼 서로 살았으면 좋겠다"

김순악할머니

"꽃이 있으면 나비도 있어야지. 꽃 있는 데로 날아오게 하자"





"꽃을 만질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기분이 편안해지고 세상 사람들 모두 꽃 보면서 꽃 좋아하는 것처럼 서로 살았으면 좋겠다" 심달연 할머니

Key plant 주요 식물



고리풀 *Veronica linariaefolia*

한국 자생종 [naturalized species , wild species , 自生種]

향토종으로 그 지역에 저절로 사는 모든 야생종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외래종에 대응되는 개념.



등골나물 *Eupatorium japonicum* Thunb



개장향물 *Apocynum lancifolium*



범부채 *Belamcanda chinensis*

나비가 좋아하는 초종



접시꽃 *Althea rosea*



물망초 *Myosotis sylvatica*



쑥부채이 *Aster yomena*



붓들레아 *Buddleja, or Buddleia*



뽕나무 *Rosa multiflora*



COLOUR IN THE GARDEN



순결 혹은 시작을 의미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흰색은 맑고 투명하다. 흰색은 색을 갖지 않으면서 밝음의 정도만을 나타낸다.
 흰색에서 검정까지의 사이에 있는 10단계의 색을 연출한다. 무채색이기 때문에 다른 색과 섞어 놓았을 때 혼란스럽지 않고, 단지 다른 색채를 밝게 보여주거나 어둡게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정원에 흰색 꽃이 많으면 밝고 경쾌해지고, 회색이나 검정을 첨가하면 어둡고 차가운 느낌으로 다가 온다.
 정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흰색(White Colour). 흰색은 어떤 색의 꽃과도 잘 어울리고, 색과 색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원에 심으면 좋을 만한 흰색의 꽃들(White Flowers)을 살펴보자.

오 도

플루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치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후테리 아킬레아(툼플속)
Achillea Millefolium
 국화과-속근초
 ▶ 6-10월 수 3월, 9월 ↓ 80cm



노말레 알리움(부추속)
Allium paradoxum var. normale
 백합과-속근초
 ▶ 4-5월 수 9-10월 ↓ 30cm



스티파티움 '알부'(부추속)
Allium stipitum 'Album'
 백합과-속근초
 ▶ 5-6월 수 9-10월 ↓ 40cm



아기란썰썰 '파우더 퍼프'(아기란썰썰속)
Argythanthemum Powder Puff
 국화과-속근초
 ▶ 6-10월 수 3월 ↓ 50cm



마리티마나도부추 x 주니퍼폴리아
 (너도부추속) *Armeria maritima x A. juniperifolia*
 갯질경이과-속근초
 ▶ 5-6월 수 9-10월 ↓ 30cm



아시아티카 부들레이(부들레이속)
Buddleja asiatica
 현상과-속근초
 ▶ 이른봄 수 9-10월 ↓ 4m



동백나무 '그웨네스 모리'(동백나무속)
Camellia japonica 'Gweneth Morey'
 차나무과-상목활엽관목
 ▶ 3-5월 수 10월 ↓ 4m



일리아시동백 '프란시스 행거'
Camellia x williamsii 'Francis Hanger'
 차나무과-상목활엽관목
 ▶ 3-5월 수 10월 ↓ 4m



라티폴로라초롱꽃 '로돈 안나'(초롱꽃속)
Campanula latifolia 'Lodan Anna'
 초롱꽃과-속근초
 ▶ 6-8월 수 9-10월 ↓ 1.5m



칼리포르니카카르펜테리아(카르펜테리아속)
Carpenteria californica
 수국과-상목활엽관목
 ▶ 6-7월 수 9-10월 ↓ 2.5m



명자꽃 '니발리스'(명자나무속)
Chaenactis speciosa 'Nivalis'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수 10월 ↓ 2.5m



아르만디클레마티스(오아리속)
Clematis armandi
 미나리아재비과-상목영관속근초
 ▶ 4-8월 수 9-10월 ↓ 3m



몬타나클레마티스(오아리속)
Clematis montana
 미나리아재비과-낙엽영관속근초
 ▶ 5-7월 수 9-10월 ↓ 3m



은방울꽃(은방울꽃속)
Convolvulus majalis
 백합과-속근초
 ▶ 5-6월 수 9-10월 ↓ 30cm



중국산달나무(층층나무속)
Corus kausa subsp. chinensis
 층층나무과-낙엽활엽교목
 ▶ 6월 수 10월 ↓ 8cm



(제비고깔속)
Delphinium cv
 미나리아재비과-2년초
 ▶ 6월 수 9-10월 ↓ 1.2m



세트쿠에넨시스말발도리(말발도리속)
Dischidanthus setchuensis var. corymbiflora
 범위귀과-낙엽활엽관목
 ▶ 5-6월 수 10월 ↓ 2.5m



알부스덕담누스(백선속)
Dischidanthus albus
 운향과-속근초
 ▶ 5-6월 수 9-10월 ↓ 60cm



종꽃 '솔트우드 섬머'(디기탈리스속)
Digitalis 'Saltwood Summer'
 현상과-2년초
 ▶ 5-6월 수 9-10월 ↓ 2.5m



스미쓰디스포움(애기나리속)
Disporum smithii
 백합과-속근초
 ▶ 5-6월 수 9-10월 ↓ 60cm



페롤라투스등대꽃나무(등대고차우속)
Eriophorum perfoliatum
진달래과·낙엽활엽관목
▶ 5-6월 수 10월 ↑ 2.5m



카르빈스키아누스에리게론(개망초속)
Erigeron karwinskianus
백합과·속근초
▶ 5-7월 수 9-10월 ↑ 30cm



미국수국 '아나벨레'(수국속)
Hydrangea arborescens 'Annabelle'
범의귀과·낙엽활엽관목
▶ 7-9월 수 10월 ↑ 2.5m



은방울수선(레우코코름속)
Leucocorymbium aestivum
백합과·구근속초
▶ 4월 수 10월 ↑ 70cm



함박꽃나무(목련속)
Magnolia stellata 'Centennial'
목련과·낙엽활엽교목
▶ 6월 수 10월 ↑ 6cm



큰바늘꽃 '알BUM'(바늘꽃속)
Epilobium hirsutum 'Album'
바늘꽃과·속근초
▶ 7월 수 9-10월 ↑ 60cm



오크라케이아헤베(헤베속)
Hebe ochracea 'James Stirling'
현삼과·상록활엽관목
▶ 5-6월 수 10월 ↑ 50cm



키네레이아버리스(서양말랭이속)
Ilex saetensis subsp. cinerea
심자화과·상록속초
▶ 4-5월 수 9-10월 ↑ 50cm



목련(목련속)
Magnolia kobus
목련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10월 ↑ 12m



별목련 '센테니얼'(목련속)
Magnolia stellata 'Centennial'
목련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10월 ↑ 2.5m



마리티폼삼지구엽초(삼지구엽초속)
Epimedium trifoliatum subsp. maritimum
매자나무과·속근초
▶ 4월 수 9-10월 ↑ 50cm



크리스마스 로즈(헬레보러스속)
Helleborus 'Christmas'
미나리아재비과·상록속초
▶ 3-4월 수 9-10월 ↑ 50cm



아이리스 '빌버리'(붓꽃속)
Iris laevis 'Bibury'
붓꽃과·속근초
▶ 5월 수 9-10월 ↑ 1m



목련 '루 산'(목련속)
Magnolia 'Lu Shan'
목련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10월 ↑ 8m



벤토니키폴리아메코노시스(메코노시스속)
Magnolia 'Sayana'
목련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10월 ↑ 8m



에리무루스 '조안나'(에레무르스속)
Eremurus 'Joanna'
백합과·구근속초
▶ 6-7월 수 9-10월 ↑ 1m



하이신스 '카네기'(하이신스속)
Hyacinthus orientalis 'Carnegie'
백합과·구근속초
▶ 3-4월 수 10-11월 ↑ 50cm



제비붓꽃 '알바'(붓꽃속)
Rhododendron 'Georgine'
붓꽃과·속근초
▶ 5월 수 9-10월 ↑ 1cm



목련 '샤오나리'(목련속)
Magnolia 'Sayana'
목련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10월 ↑ 8m



초령목(초령목속)
Michelia yunnanensis
목련과·상록활엽교목
▶ 5월 수 10월 ↑ 20m



수선화 '비어쉬바'(수선화속)
Narcissus 'Beersheba'
수선화과·구근속초
▶ 4월 수 10-11월 ↑ 60cm



수선화 '엘비라'(수선화속)
Narcissus 'Elvira'
수선화과·구근속초
▶ 4월 수 10-11월 ↑ 60cm



꽃담배(담배속)
Nicotiana glauca
가지과·1년초
▶ 7-8월 수 3-4월 ↑ 1m



클루시아작약(작약속)
Paeonia clusii
미나리아재비과·다년초
▶ 4-5월 수 9-10월 ↑ 30cm



황금코로나리우스고령(고령나무속)
Philadelphus coronarius 'Aureus'
고령나무과·낙엽활엽관목
▶ 6월 수 9-10월 ↑ 2m



고령나무 '돔메 블랑체'(고령나무속)
Philadelphus 'Dome Blanche'
고령나무과·낙엽활엽관목
▶ 6월 수 9-10월 ↑ 2m



애초 '기가스'(앵초속)
Primula 'Giglas'
앵초과·다년초
▶ 4월 수 9-10월 ↑ 30cm



벚나무 '아마야도리'(벚나무속)
Prunus 'Amayadori'
장미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10-11월 ↑ 10m



만병초 '지오게테'(진달래속)
Rhododendron 'Georgine'
진달래과·낙엽활엽관목
▶ 5월 수 10-11월 ↑ 1m



만병초 '하크우드 문라이트'(진달래속)
Rhododendron 'Harkwood Moonlight'
진달래과·낙엽활엽관목
▶ 5월 수 10-11월 ↑ 1m



필리페스장미 '키프게이트'(장미속)
Rosa 'Kiftgate'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6월 수 10-11월 ↑ 12m



플로리분다장미 '아이스버그'(장미속)
Rosa 'Iceberg'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6월 수 10-11월 ↑ 10m



스트리아눔등심붓꽃(등심붓꽃속)
Spiraea x cinerea 'Gretschheim'
붓꽃과·속근초
▶ 6-7월 수 9-10월 ↑ 60cm



키네레이아조팝 '그레트셰임'(조팝속)
Spiraea x cinerea 'Gretschheim'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4월 수 9-10월 ↑ 1.5m



파르테니움쑥국(쑥국화속)
Tanacetum parthenium 'Rowallane'
국화과·속근초
▶ 6월 수 9-10월 ↑ 50cm



클로로페탈로움연초(연초속)
Trillium grandiflorum
백합과·속근초
▶ 4월 수 9-10월 ↑ 50cm



털섬구화(섬꽃나무속)
Viburnum plicatum 'var. tomentosum'
범의귀과·속근초
▶ 5월 수 10-11월 ↑ 4m



클로로페탈로움연초(연초속)
Trillium grandiflorum
백합과·속근초
▶ 4월 수 9-10월 ↑ 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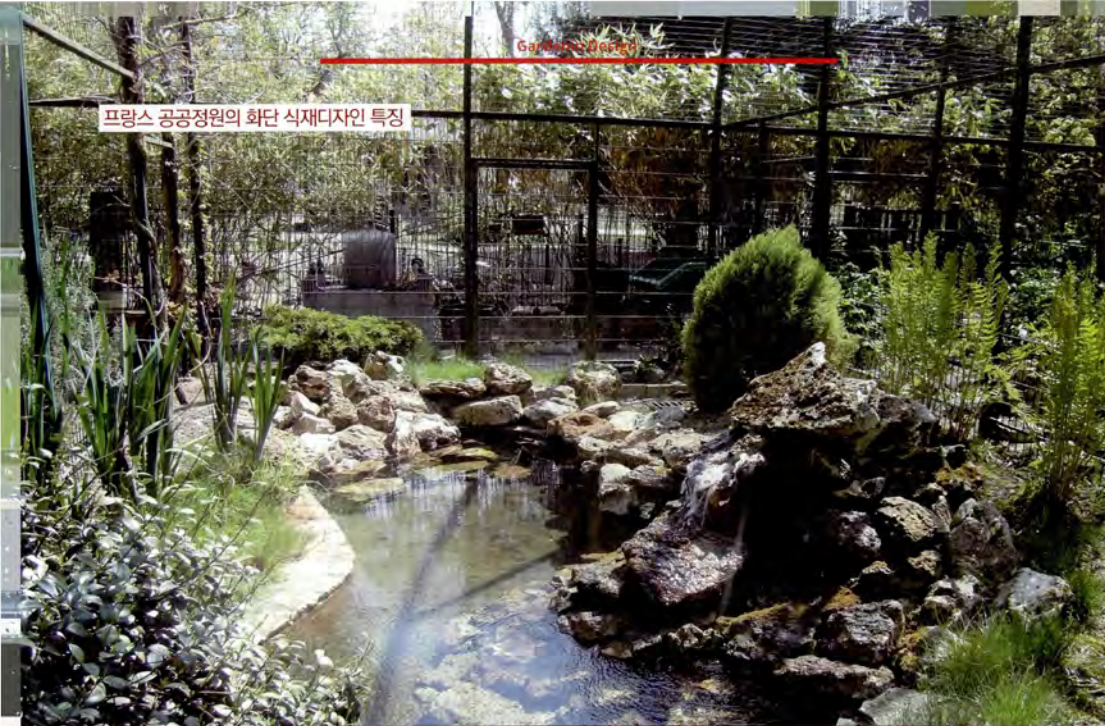


클로로페탈로움연초(연초속)
Trillium grandiflorum
백합과·속근초
▶ 4월 수 9-10월 ↑ 50cm



클로로페탈로움연초(연초속)
Trillium grandiflorum
백합과·속근초
▶ 4월 수 9-10월 ↑ 50cm

프랑스 공공정원의 화단 식재디자인 특징



프랑스의 화단 식재의 특징



글/사진 정수조경 정수진대표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약 5년전 봄에 불란서에 다양한 꽃 식재 배합을 보러 떠난 여행이 있었다. 어느 나라보다 불란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불란서만큼 예술적인 먼, 음식, 건축물, 나라 질서 등 가장 매료되는 나라로 평가되어 기회만 되면 가보다 보니 조금씩 깊이를 알게 되어 이번에는 파리공항에서 차를 빌려 바로 도시를 빠져 나와 서쪽 노르만 지역으로 방향을 잡았다. 약 일주일일 서북쪽만 구경할 계산인데 주 테마는 르와르강을 따라 유명한 성(castle)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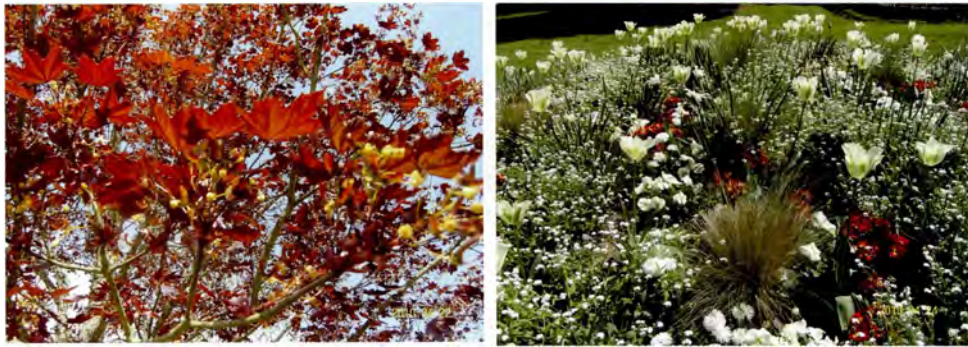
4월 말에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봄이 더 일찍 와서 생각보다 기후도 상쾌하고 봄 꽃도 만발 하여 아주 기억에 남는 좋은 여행이 되었다. 그때만 해도 정식으로 조경업에 들어서기 전인데도 나도 모르게 카메라 초점이 꽃 배합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어 독자분들과 같이 볼 수 있어 반갑게 되었다. 그 후 2년뒤 한국에 연수원 조정 공사를 하게 되어 불란서 꽃 배합을 한 마당 연출하고 싶어 수소문 한 끝에 홍콩에 살고 있는 유명한 불란서 garden designer (Delphine Mendel)를 알게 되어 design을 맡기고 한국에 지파식물들을 번역하여 보냈더니 불란서에도 약 70%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초화류가 달라서 한국과 불란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garden designer의 색깔 배합 기술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르와르강 입구에 난트라는 항구도시가 있고 난트부터 다시 동쪽을 한강보다는 적은 르와르강이 굽이 굽이 수백 킬로 펼쳐져 있다. 그 강을 따라 유명한 성들이 10개 가까이 있어 관광 코스로 유명하다. 크고 작은 성들 그 주변에 작은 마을들과 레스토랑들과 기념품 가게들이 있다. 마을 단위에서 장식한 다양한 꽃 군락들이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꽃 군락들의 군락 자체 모양도 다양하지만 군락의 색상 배합도 같은 것이 없다. 도대체 그 design은 누가하며 관리비등 제법 경비가 들어 갈 터인데 총체적인 system이 궁금하다.



역사도 오래되고 다양한 예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지만 꽃 색깔 배합은 연중 바꾸어 가면서 우아하고 화려함을 나타낸다. 이것도 국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옆 나라 이태리도 불란서를 따라 올 수 없다. 이태리는 좀 지저분 한데 비해 불란서는 일본 같이 청리 정돈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 상쾌함까지 선물 한다.



꽃을 자세히 보면 팬지, 튜립 등 한 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꽃들이 데도 색깔과 종류의 심플한 mix가 point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는 꽃 전문가가 아니라 상세하게 분석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에 공공 장소에도 형식적인 군대식 배열 보다는 좀더 예술적인 꽃 배합 쪽으로 선회 할 수 있는 시기나 실력 있는 분들이 있다고 본다.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기대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정원으로의 여행 10

A trip to the garden

정원 아이디어·정원을 디자인 하려면 여러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어디서 생각해 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알아보자.

어떤 정원들은 철학, 시, 정치적 견해를 비롯해 과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정원을 만든다. 혹은 작가가 왜 이런 정원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특정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디자인하기도 한다.



정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쓰인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정원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서양 정원의 역사에서는 환경적 특성이나 종교적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 그 정원이 왜 만들어 졌는지, 왜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물이 귀했던 사막이 있는 곳에서는 수경시설, 이슬람종교가 있는 곳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파라다이스를 재현해 놓은 물줄기와 과일수, 녹음수 등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원의 요소들을 볼 수 있다. 구릉지가 많았던 이탈리아에서는 노단식(계단식) 정원의 형태가 발전 하였고 평지가 많았던 프랑스에서는 페르시안 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평면 기하학적 정원이 탄생하였다.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현 가든디자이너스튜디오 대표
영국 예섹스 대학교 가든디자인 컨설팅 및 조경 석사
천안연임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순천만정원박물관 찰스 젤스 Charles Jencks 작품
산을 올라가는 형태처럼 보이는 굽은지는 복잡한 지형을 이용하여 우주의 실체와 본질을 탐구하고 카오스 이론(천지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표현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 형태를 이용하여 디자인하는 작가이다. 순천만 정원에서는 순천 도시를 형상화 하여 '물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정원을 만들었다.

동양의 정원으로 대표적인 중국 정원들을 보면 자연환경을 감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명상을 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다. 따라서 정원을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켜 자연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는데 의미를 두었고 시인의 사상이나 화가의 작품으로서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는 우주만물을 표현하고 신선 사상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국처럼 웅장하진 않지만 자연을 내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 축소시키는 형태를 만들었으며 정원의 구성요소들에 세밀하고 상징적, 비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불교의 선사상의 영향으로 생겨난 고산수식 정원은 조용한 명상의 장소이자 추상적 축소를 통해 새롭고 독창적인 자신들의 형태를 가진 정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정원보다는 사계절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자연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 소박한 주거를 짓고 주변 자연을 정원삼아 즐겼던 별서정원이 그것에 해당한다.

지금은 어떻게 정원을 만드는 것일까? 현대의 정원 역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 속에 공원을 만들고 개인 소유의 공간에는 자신만의 정원을 만든다. 겉으로 보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루트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삶의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정원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주거형태를 보면 전원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도 있지만 건축 기술의 발달로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건물도 너무나 많다.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한 형태의 주거 공간에 인공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원의 형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정원도 있지만 정원을 디자인하는 작가들의 성향이나 사상에 의해 만들어 지는 정원이나 컨템퍼러리 가든처럼 현 시대를 반영하는 정원 재료나 요소들을 사용하여 만든 정원도 있다. 이런 새로운 정원들은 정원 박람회장을 방문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the Living Room-거실, 영국 햄프셔 플리워스에 선보였던 작품. 건물과 정원의 경계가 모호해 침에 따라 집안의 거실이 정원으로 나왔다. 거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orces of Nature 한 사람이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는 나무들을 혼자 받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한 쇼가든의 모습. 이 정원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모호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로 상생 해야 할 존재이면서도 서로로 인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했다.

쇼가든이라고 하는 공간. 작가가 주제를 가지고 만든 정원 공간이다. 캠페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정원에 담아 내기도 하고 앞으로 정원 디자인이 나아갔으면 하는 형태를 선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쇼가든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공간이 될 수 있다. 일반인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고 재창조 해 나갈 수도 있고 수많은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주택 정원을 만들 때 어떤 정원을 만들 것 인가? 늘 고민하게 된다. 기존에 많이 보아왔던 정원의 형태 보다 자신의 생각을 잘 반영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 쇼가든의 작가들처럼 주제를 정해보거나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헌 옷, 스템 강통, 나무 포장상자를 이용한 벽 장식 가드닝



우 정 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 관 리 법

배수구멍이 없는 용기에 식재 했기 때문에 관수량을 적게 해서 부리가 썩지 않도록 관리한다.
꽃이 있을 때는 일정량의 일조량이 필요하므로, 실내라도 보조광에 상권을 써 준다. 통풍이 잘 되게 관리하고,
비료는 식재 시 표토에 고체비료를 넣어 주거나, 관리 시 액체 비료를 1000배 희석하여 엽면시비 한다.

한국의 정원&조경수 도감

저자 : 제갈영, 손현택



530여 종의 우리나라 정원&조경수목 소개와 가지치기까지!

이 책은 나무의 유형을 총 9가지 즉 꽃나무, 낙엽관목&교목, 풍치수와 가로수, 과실수, 상록활엽수, 침엽수, 덩굴식물, 도입&원예종 등으로 분류하여 수목의 생육정보는 물론, 가지치기 방법, 번식, 병충해, 조정포인트 등을 세세하게 나눠 나무 애호가들이 필요로 하는 쓰임새를 강조한 정원&조경수 도감이다.

수록된 수종은 약 530여 종이며, 조정의 포인트에 따라 주택 정원, 아파트, 빌딩, 공원, 전원주택, 가로수, 수변 등 소재별과 심볼트리, 산울타리, 방음수, 방화수, 방풍수 등으로 표시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초보자를 위한 가지치기의 기초 해설 및 도입부에 수록한 식재 공간별 화보를 통해 수종에 따른 공간별 식재 예제를 미리 참고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집 마당에 정원수를 직접 심어보자!

흔히 정원수라고 하면 관상가치가 높은 나무로서 정원에 심는 나무를 말한다. 나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자연환경의 소재로서 그 활용가치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원수는 이제 내 집 마당은 물론이거니와 아파트나 공원, 빌딩, 가로수 등 아웃테리어 디자인의 필수 요소로 다른 조경시설(조형물, 놀이터 시설 등)과 어우러져 조경수(造景樹)로서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은 내가 사는 집 마당의 정원수를 심고 가꾸거나, 한변쯤 심어볼 만한 수종을 선택할 때, 또 아파트나 빌딩, 공원, 가로수 등 외관 조경에 필요한 소재로서의 조경수를 선택할 때 참고해볼 수 있는 530여 종의 수목들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유형별 수목정리와 수목별 생육상, 조정포인트, 전정법, 병충해, 번식법 등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 현재 살고 있는 집 마당에 사계절에 맞춰 직접 정원수를 심어 기르거나 하는 분들은 물론, 조경관련 전문가나 나무 무용 관계자, 조경관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제갈영

문화예술인 > 사진작가

저자 제갈영은 우리나라 나무와 야생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원예식물들을 두루 연구하고 있다. 십 수년 동안 전국을 취재하며 수집한 각종 정원 및 조경수목을 비롯하여 그 동안 쌓아온 우리나라 나무 정보들을 정원&조경수와 접목하여 애호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한 권에 담았다. 주요 저서로 '우리나라 나무이야기', '우리나라 야생화이야기', '베스트 공기정화식물', '손바닥 원예식물도감', '진본 한국의 산야초' 등이 있다.

저자 : 손현택

저자 손현택은 수목을 비롯한 및 식물전반과 주택 정원의 조경수목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하고 있다. 공저로 '허브식물도감'과 '먹는 꽃 이야기'가 있고 '초보농부의 텃밭 가꾸기' 등을 집필하였다.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도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독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192,000원)

Gardenin

발행처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 이명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 031-712-7009
팩스 : 031-634-7991
전문위원 :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대표
김귀순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평성 농학박사 /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중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주)한국원예자재

“미림가든센터” 의 새이름

조이가든센터

OPEN

2015년 10월 20일

“미림가든센터” 가
“조이가든센터” 로 변경,이전합니다.

총 500평 규모의 넓은 매장에서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조이가든센터

지하철 이용시(4호선)

선바위역 6번출구, 경마공원역 6번출구에서 약 700M (도보 10분)

버스 이용시(완경사업소 하차)

일반 11-3, 17, 917 / 간선 441, 541, 542 / 마을버스 3-1, 6, 7-2

완경사업소 정류장 하차, 정류장에서 약 600M (도보 8분)

경기도 과천시 상하벌로 70

(지번 : 과천동 231-4)

Tel. (02)585-5346, 503-7080

Fax. (02)3473-8989

검색창에 '조이가든' 검색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해의 품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박공영박사와 우리꽃연구소 (UIR)의 이광범, 박영미 연구원들,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은 붉은 땅을 흘리는 무더위에도 UIR의 독립품종을 연구하며 자부심과 긍지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품종학회에 올리며 규모는 작아도 조직배양의 성공으로 전세계로 로열티를 국내로 받고있는 품종이다.



1. 삼수후 5cm로 성장한 모종



2. 모종을 작은 화분에 옮겨심기



3. 개화 직전의 모습



4. 개화 시작하여 화단에 식재 가능



5. 6치 포트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